

메주고리예



Medjugorje

May, 2007 제38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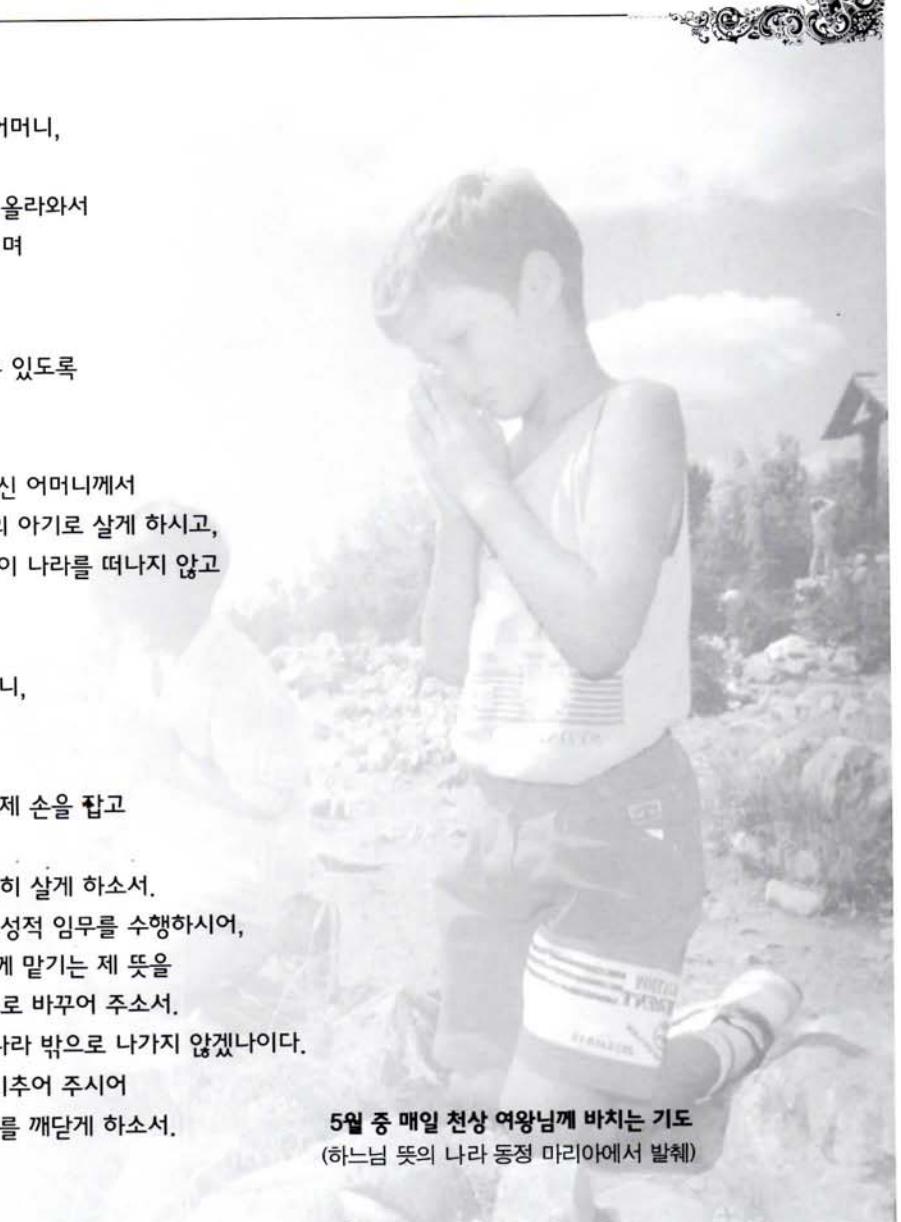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오늘도 다시 너희를 회개하라고 부른다.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 시기는 은총의 시간이니,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하여라.
'지금은 내 영혼을 위한 때이다' 라고 말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헤아릴 수 없는 애정으로 사랑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 해 주어 고맙다."

2007년 4월 25일

"원죄 없는 여왕이신 천상 어머니,
어머니께 바쳐진 이 달에
아기처럼 어머니 무릎 위에 올라와서
저 자신을 어머니 팔에 맡기며
뜨거운 갈망으로 청하오니,
크나큰 은총을 베푸시어,
하느님 뜻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저를 받아 주소서.
거룩하신 어머니,
하느님 뜻의 나라의 여왕이신 어머니께서
저를 받아들이시어 어머니의 아기로 살게 하시고,
어머니의 자녀들이 다시는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살게 하소서.
그러므로 여왕님,
여왕님께 저 자신을 맡기오니,
하느님 뜻의 나라로
제 발길을 이끄시며
여왕님의 모성적인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제 온 존재를 이끄시어
하느님 뜻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여왕님께서는 저에 대한 모성적 임무를 수행하시어,
어머니의 아기로서 여왕님께 맡기는 제 뜻을
저를 위하여 하느님의 뜻으로 바꾸어 주소서.
그러면 결코 하느님 뜻의 나라 밖으로 나가지 않겠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저를 비추어 주시어
"하느님 뜻"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하소서.

5월 중 매일 천상 여왕님께 바치는 기도
(하느님 뜻의 나라 동정 마리아에서 발췌)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하신 지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선교회의 신부님들과 모든 사제, 수도자들을 위하여...
 - 어머니 마을과 봉사자들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원님들과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예수님을 더욱 더 많이 사랑하는 영혼이 되게 해 주십시오.
 -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 불안한 삶의 현실을 봉헌합니다.
 - 성모님, 장애아인 아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해주세요.
 - 암투병증인 OOO와 그의 자녀들을 보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성모님, 젊은이들이 사제성소에 응답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보살펴주세요.
 - 중환자실에 있는 아들에게 간기증자가 하루빨리 나오도록 기도해주세요.
 - 개신교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성모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예수님, 자녀들을 성령으로 지켜 주시고 믿음의 체험 안에서 살게 해 주세요.
 - 성모님, 33일 봉헌으로 제가 성실한 신양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고통속에 있는 모든 사제들에게 인내와 힘과 용기로 굳건한 사제들이 될 수 있도록...
 - 본당 신부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예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주세요.
 - 남편이 가정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의 모든 가정에 평화를 주소서.
 -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영혼들과 가족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소서.
 - 예레미야 수녀님과 주님과 성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남편이 천주교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주세요.
 - 동생 가족이 새 삶의 터전에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누나와 형들에게 굳은 믿음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자녀들에게 굳은 신앙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친미를 드리는 도구로 받아 주소서.
 - 남편에게 건강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임을 알게 하소서.
 - 죄인들의 회개와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들과 낙태된 아기들의 영혼과 부모들을 봉헌합니다.
 - 죄 많은 딸을 그리워하다가 죽은 어머니와 친척들의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옵소서.
 -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관계 혼배를 받은 남편과 은총, 기쁨, 평화가 가득한 성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 남편이 도박중독에서 치유되어 좋은 아빠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그 악습의 뿌리에서 보호해주세요.
 - 5월 메주고리에 순례자들이 내적, 외적 치유로 변화되어 예수님께 친미 영광 올리는 은혜로운 감사의 시간을 허락하소서.
 - 프란치스코 카프치노 수도원에 입회하시는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님이 성모님의 구원사업을 위한 큰 사제가 되시도록 인도해주시고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 성모님, 백 요셉 마리아, 신 경남 스테파노, 윤 종식 티모데오 신부님을 늘 보호하시어 영육간의 건강과 더불어 학식과 덕망으로 성모님의 아들로서 주님께 친미와 영광을 드리는 사제가 되게 하소서.
 - 방학을 맞이하는 자녀들을 봉헌하오니 가족, 친척, 이웃들이 서로 사랑과 관심의 손길을 펼치어 그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과 유혹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 하소서.
 - 미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조상님의 영혼들이 후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의 은총으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과 딸과 사위, 손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 남은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세요.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5월 메주고리에 순례때와 요조신부님께도 미사를 봉헌합니다.



신앙을 가르쳐주는 성모님의 마을 메주고리예

대구 대교구 복현 성요셉 본당 이재원 읍 주임신부님과 남마르타 자매의 인터뷰

-2007년 3월 16일 메주고리예-



남마르타 : 본당 이름과 신부님의 부임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신부님 : 올 8월이면 복현 성요셉 성당에 부임한 지 만 3년이 됩니다. 2006년 교세 통계표에 의하면 총 본당 신자 수는 3021 명으로 되어 있으며 1/3 정도가 주일 미사에 참여합니다.

남마르타 : 본당내의 기도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신부님 : 저희 본당은 소공동체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3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마르타 : 어떤 동기로 메주고리예 순례를 오시게 되었습니까?

신부님 : 제가 본당에 부임한 후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를 적극 권장했어요. 아마도 성모님께서는 본당에 부임하자마자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를 강조하는 사제를 보시고 묵주기도를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작년 3월 메주고리예에 저를 불러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를 가르치지 말고 성모님께 확실하게 배워서 가르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군요.

남마르타 : 메주고리예에 오시기 전 신부님께서 지니신 성모신심에 대해 말씀해주겠어요?

신부님 : 신자들에게는 묵주기도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묵주기도를 거의 바치지 않았는데, 해봐야 고작 5단 정도였습니다.

남마르타 : 한국 사제로서 메주고리예에 순례를 오셔서 보신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신부님 : 제가 느끼고 실천하는 모토는 -항상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함 -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 입니다. 제가 메주고리예에서 가장 강력하게 느끼고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신자들에게도 거룩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남마르타 : 전세계의 많은 주교님들께서 메주고리예에 오셔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 많은 순례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고해성사를 보고 오랫동안 무릎을 끓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놀랍다고 합니다. 신부님의 본당에서는 고해성사가 잘 실천되고 있는지요?

신부님 : 제가 처음 메주고리예에 와서 성모님의 주요 다섯 가지 메시지를 듣고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신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목 차원에서 배려하고 있어요. 그 중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은 "주님 제가 또, 또 왔습니다" 입니다. 이 말은 주일 미사 말고도 평일 미사에도 참여한다는 뜻으로 많은 신자들이 매일 미사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남마르타 : 메주고리예를 다녀가신 뒤 신부님 개인과 본당의 변화는 어떠셨는지요?

신부님 :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군요. 제 스스로에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기도생활의 변화인데 하루 20단 묵주기도, 하루 두 시간 이상의 성체조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웠던 성무일도 기도가 메주고리예 순례를 다녀온 후 부터는 즐겁고 기쁜 기도가 되었고, 성서도 기쁘게 자주 읽고 있어요. 미사를 집전할 때는 온 몸과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미사 후에는 힘이 빠질 정도로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사제인 제가 변하니까 본당의 많은 신자들도 같이 열심히 성체조배와 묵주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되더군요. 신자들도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성스럽게 변하고, 본당의 모든 활동이 아주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저와 기도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본당에 내려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총과 축복을 현실에서도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남마르타 : 신부님이 변화되시니까 많은 신자들도 묵주기도를 드리신다구요?

신부님 : 미사 전후로 드리지는 않고, 제가 본당 부임 즉시 묵주기도 105단회를 조직했는데, 하루 15단씩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미사 봉헌시간에 한 주간 동안 드린 묵주기도를 종이에 써서 봉헌하도록 했더니, 한 200여명의 신자들이 이렇게 매일 묵주 기도 드린 결과를 봉헌시간에 제대 앞에 드리고 있었어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묵주기도 회를 만들고 매일 이렇게 기도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생미사를 봉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단을 봉헌하시는 신자들의 명단을 중앙계시판에 게시해서 본인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자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더 많은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빛의 신비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5단 회원들에게 하루 20단씩 일주일에 140단씩 봉헌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

재 숫자가 늘어서 250명의 회원들로 늘었습니다. 사순시기에는 본당에서 하루 300 명 정도가 매일 20단의 묵주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회원들을 더 모집하고 싶은 것이 제 희망입니다.

남마르타 : 오늘 요조 신부님께서는 '사제직은 성사다'라는 간결한 정의를 내리시면서 사제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육 신부님께서는 메주고리예에 오시기 전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제직의 은총에 의심이나 회의를 느끼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또 메주고리예를 순례하신 후 그 동안의 사제직을 다시 돌아 보신 적은 있으셨는지요?

신부님 : 부끄럽지만, 메주고리예 오기 한 달 전 개인적으로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신앙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제로서 잘 살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비한 체험을 하고 메주고리예를 순례하고 돌아 간 뒤 사제로 다시 태어난 기분을 느낄 정도로 과거에는 참 잘 살지 못했어요. (신자들에게 잘 살고 있는지 물어 보심. 신자들도 동의하고 모두 웃었음)

남마르타 : 신부님께서는 TV도 보지 않으신다면서요?

신부님 : 예, 개인적인 것은 보지 않지만 평화방송의 중요한 강의나 설교, 성서해석 등은 보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대림절이나 사순 전에 TV 시청을 자제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신자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남마르타 : 이곳 본당에서는 한국 순례단처럼 열심히 기도하라고 할 정도로 한국 순례자들에 대한 평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끔은 과대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곳이 성모 성지라는 특성상 여러 형태의 주관적인 모습의 신앙을 지닌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잘못된 신심을 지닌 이들도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신부님께서는 사제로서 한국순례자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신부님 :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이 메주고리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는 짧아서 신자들은 신심이나 영성의 깊이가 역사가 깊은 유럽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메주고리예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순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동안 접

해보지 못한 신심과 영성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유럽의 신자들의 경우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성인들의 믿음과 신앙의 표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는 짧고 영성적으로 깊은 표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물질이 만연한 현실적으로 주위에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면서 사는 사람도 드물기 때문에 이곳 메주고리예를 찾아오는 한국 신자들은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거룩한 순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살면서 신자들과 비신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요.

남마르타 :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교님들께서 메주고리예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말 많은 신부님들께서 이곳을 찾아오셔서 조용히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신부님께서는 메주고리예에 첫 순례를 오실 때 행여 장상들께 대한 염려는 없으셨는지요?

신부님 : 제가 메주고리예 순례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간 것이 작년이었지요. 동료 신부님들께 순례 이야기를 하면서 메주고리에 성모님이 말씀하신 다섯 가지 메시지를 말했죠. 묵주기도, 성서, 단식, 매달의 고해성사, 가능한 매일미사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성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동료 신부들 월, '지나치게 빤한 말, 우리가 늘 신자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멀리까지 갔었느냐'고 편장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도 선배신부님들이나 장상들께서도 메주고리예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남마르타 :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관광차원에서 전혀 구경거리가 없는 이곳을 그리워하면서 찾아오는 많은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혹시 그 이유가 성모님의 특별한 현존에 대한 체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신부님 : 물론입니다. 성모님께서 이곳에 발현하셔서 말씀하시고, 자신들의 체험을 증언하는 많은 이들의 힘에 의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봐요. 특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증언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께 감사 찬미를 드립니다.

남마르타 : 요조 신부님을 만나신 소감은 어떠셨는지요.
신부님: 네, 요조 신부님께서 당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

씀하실 때, 저는 성모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요조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올 해도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화답송에서 '이는 너희 하느님의 말씀이니 그 말을 들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에게는 요조 신부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려왔고 참으로 감동스러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남마르타 :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사제 성소는 어떻게 깨달으셨는지요?

신부님 : 저는 3대째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부모님, 친척들로부터 "너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 왔어요. 제가 당신들의 꼬마 신부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교를 지원하고 있었지요. 저는 당연히 신부가 되어야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어긋난 길을 간 적은 없었어요. 저는 가톨릭계 중학교와 소신학교와 대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으로 사제가 된 것 같아요.

함께 순례를 오신 본당 신자 : 저는 복현성당 박은미 아가다입니다. 메주고리를 다녀오신 신부님이 너무 변하셔서 저희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내면의 변화는 모르겠지만 외적으로 성체조배시간이 더욱 늘어났고, 반 협박을 해가면서 묵주기도를 하라는 거룩한 강요(?)를 하셔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런 신부님과 함께하는 본당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본당 신축을 하면서 영육적으로 무척 지쳐 있었는데 신부님의 부임과 메주고리예 순례를 다녀온 후 저희는 새롭게 힘을 얻었고 본당에 신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M



내가 주는 물

74. 4. 18

한 방울의 이슬이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사막처럼, 교회가 '나의 이 일', 즉 내가 몸소 사제들 가운데서 수행하고 있는 이 일을 아주 오래 전부터 기다려 왔다는 사실을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오늘날 이 일을 받아들일 준비를 가장 잘 갖추고 있고 가장 열망하는 이들은 정녕 내 교회의 사제들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혼란과 수많은 배교 행위 때문에 내 아들들의 영혼이 메마르고 있는 것 같았기에, 이제 그 큰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순수한 물, 수정처럼 맑은 물이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 물을, 내가 손수 그들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손이 마음대로 너를 쓸 수 있도록 언제나 더욱 민첩해져야 한다. 큰 계획을 품고 있는 내가 이끄는 대로, 너는 온전히 따라오너라. 이제부터 너는 이 운동을 위해서 (...) 다른 모든 임무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들아,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을 곳곳에서 모아라. 정말이지 그들은 서로 알 필요가 있다. 서로 만나 형제로서 사랑하고 서로 돋고 격려하면서, 이 시대의 혼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항상 단순함과 자아포기의 정신으로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집, 옷, 음식 따위 네게 필요한 것은, 엄마만이 할 줄 아는 방식으로 내가 다 구해 주마.

나는 너를 이끌어 인간적인 의젓거리가 아무 것도 없는 절대 빈곤, 가장 완전한 포기에 이르도록 하겠고, 그리하여, 내가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므로 네게 늘 당부해 온 일을 하는 법을 네가 마침내 터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건 바로 네가 내게만 의탁하는 일, 언제나 내가 이끄는 대로 따르고, 무엇이나 내게만 기대하며, 내게 모든 것을 청하는 일이다.

네가 무언가를 내게 청할 때, 이 엄마의 마음은 참으로 큰 기쁨을 느낀단다!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며 너의 형제인 사제들을 위해서 무엇이나 내게 청하여라. 그러면 너는 다 얻게 될 것이다. 티없는 내 성심이 그들 안에서 벌써 가장 큰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M**

(이 메시지는 파티마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1973부터 1997까지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하늘의 여왕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성모성월



봄과 여름이 이어지는 5월과 6월에는 성모님과 연결된 전례 축일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5월 31일)과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이 있고, 신심행위로는 성모 성월(5월)과 성모의 밤이 있습니다. "성모 성월"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곱

트 교회에서 이미 6세기부터 성모공경 축제를 지냈던 기록이 있으며, 11세기에 이르러 한 달 동안의 고유한 성모 성월을 지냈습니다. 비잔틴 교회에서는 8월을 성모 성월로 지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부터 성모 성월을 지냈는데, 로마와 게르만 민족의 세속적인 봄의 축제가 그리스도교화되면서, 자연의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영적으로 동정 마리아와 연결시켜서 발전했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은, 성모 성월을 세계 도처의 신자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달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6대 조선교구장 리델(Ridel) 주교가 1877년 재입국한 후, 중국의 예수회 선교사 이탁이 저술한 "성모 성월"을 한글 번역본으로 간행하여 널리 유포시키며, 성모 성월의 의미를 알렸습니다.

성모 성월은 전례적 규정은 없으나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신심행위이고, 이 성월을 통해서 성모님의 중재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 그리고 성모님의 신앙적 모범을 배우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교회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모의 밤에는 이러한 성모님에 대한 강론과 성가, 묵상, 그리고 성모님을 찬미하는 시와 노래, 기도와 꽃다발 등을 봉헌하며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며, 본받으려 하는 공동체 예식입니다.

이러한 성모 성월은 전례 주년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 시기와 연결되어 성모 성월의 지향과 잘 조화를 이루어

윤 종식 디모데오/ 의정부 교구/
전례학 박사 과정 로마유학/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야 합니다. 예를 들면, 5월에, 부활의 오순절과 일치하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정의 막을 여는 파스카(요한 19:25-27 참조)와 성령강림 신비(사도행전 1:14 참조)에 참여하시는 동정녀 마리아의 삶에 따라 신심행위들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령의 안내하에 펼쳐지는 부활의 새로움에 참여하는 교회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시기에는 *Regina caeli* 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세주의 어머니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는 다른 노래를 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은 6세기의 옛 로마 전례에서 이미 대림 시기 금요일에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대목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신비가 서방 교회의 전례력에 특별한 축일이 된 것은 15세기입니다. 이 축일은 1263년 피사에서 있었던 프란치스코회 총회에서 비롯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 다음세기에 축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축일이 두 교황으로 인해 갈라진 교회가 화해하기를 의도하며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프라하의 주교 요한 옌스 타인은 교황 우르바노 6세와 아비뇽의 반교황 클레멘스 7세를 중심으로 갈라진지 8년이 지난 1386년에 물의를 일으킨 교회 분열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온 교회에 이 축일을 도입할 것을 우르바노 6세에게 탄원을 하였고, 1389년 교황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듬해에 우르바노 6세는 특별 회년을 선포하고, 회년을 지내는 대성전들 가운데 성모 대성당도 포함시켰으며, 그는 성모 대성당에서 7월 2일 전야제로 팔일축제를 갖춘 새 축일을 장엄하게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거로 공식 칙서는 1390년 그의 후임 교황 보니파시오 9세에 의해 반포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력을 개정하면서 7월 2일에 지내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을 성 루카의 서술에 따라 주의 탄생 예고 축일(3월 25일)과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6월 24일) 사이인 5월

31일로 옮겼습니다. 이 축일의 날 째는 시기적으로 동정 마리아가 교회의 전교여정을 시작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 대축일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축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명에서 어머니로 현존하시는 마리아를 드러내고 기념합니다.

루카 1,39-45의 복음에는 두 여인과 그 여인들의 태중에 있는 아들들이 주인공입니다. 복음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즐가리야의 집에 들어간 '주님의 어머니'를 제시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합법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말한다). 구원 역사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 토요일에 배치되어 있는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2007년에는 6월 16일)은 마리아 성심에 대한 개인 신심에서 마리아 공경으로 넘어가게 한 요한 에우데스 (1601-1680년) 덕분에 교회의 전례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765년 예수 성심 축일을 위한 고유 미사가 허락되었고, 1805년에 가서 비오 7세가 성모성심을 위한 고유 미사를 청하는 이들에게 마리아의 순결한 성심 축일을 경축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1944년 5월 예식성이 이 축일을 라틴 교회 전체로 확대하였고, 성모 승천 대축일의 제8일인 8월 22일을 축일로 고정했습니다. 1969년 전례력 개정을 통해서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 날 마리아 성심의 '선택 기념일'을 지내도록 결정하여 예수 성심과 마리아 성심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1996년 1월1일 경신성에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축일을 '의무 기념일'로 확정했습니다.



루카는 마리아의 성심을 두 차례, 곧 베들레헴 (루카 2,19)과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은 사화를 전하는 예루살렘 (루카 2,51)과 연관하여 언급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도시를 사이에 두고 탄생과 죽음에 이르는 지상 여정을 걸으셨는데, 이 여정을 동반한 제자들 중에 첫째는 그분의 어머니셨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은 이야기는 교부들의 전통에서 파스카 신비를 미리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이 경험한 것은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비유적으로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을 빼앗기겠으나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에서 언급하는 "복 되신 동정 마리아여, 하느님의 말씀을 당신 마음에 새겨 깊이 간직하셨나이다"라는 언급은 파스카의 일을 알고 고통 중에 믿으며 결정적으로 죽음을 이기게 될 '사흘날'을 기다리는 성모 마리아의 믿음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동정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 하시는 어려운 말씀을 경건하게 적극적인 침묵으로 마음 속에 간직하셨습니다. □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서울 대교구)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율 마르티(선교학 박사)

편집부장 : 최성득

편집위원 : 최래지나, 황로사, 양의현, 남지혜,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인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모후이시며 자비로우신 어머니시여, 하례하나이다.

성모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

마리아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에 대한 참된 사랑에 의해서이다. "나는 순결한 사랑의 어머니이다." (집회서 24:24) 우리에 대한 성모 마리아의 사랑을 누가 측량할 수 있으랴? 샤르뜨르의 아놀드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마리아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드님과 함께 죽으시기를 한없는 열정으로 원하셨다." 성 암브로시오는 "당신의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계셨을 때,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기 위하여 사형 집행인들에게 당신도 함께 처형하라고 내어놓으셨다." 라고 전한다. 마리아께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의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하느님께 대한 큰 사랑이다. 하느님께로 향하는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같은 계명에 속한다. 성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은 이것이니,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한다" (요한 1서 4:21)라고 하였다. 이 사랑은 서로에게 유익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복된 영혼들과 성인들 중에서 마리아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한 이는 없다. 따라서 하느님 다음으로 마리아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이는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부부들의 사랑, 또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의 사랑을 다 모은다 해도 마리아께서 단 하나의 영혼에게 주시는 사랑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니렘베르그 신부는 모든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는 사랑을 마리아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지신 사랑에 비한다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라고 우리를 당신께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항상 귀하게 간직하여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의 생명을 얻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쓰라린 고뇌를 기꺼이 견디셨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심을 당신께서 직접 보심으로 우리가 은총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마리아의 매우 귀중한 자녀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끼쳐드렸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 성자를 내어주셨다." (요한 3:16).

성 보나벤뚜라가 말하기를 "마찬가지로, 마리아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드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마리아께서 언제 아드님을 주셨는가? 마리아처럼 현명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가 당신 아드님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면, 아마 빌라도 같은 이는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을 수도

이 사랑은 서로에게 유익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복된 영혼들과 성인들 중에서 마리아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한 이는 없다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께서는 아드님의 구명을 위하여 단 한 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시는 순간까지 세 시간 동안 십자가 밑에 서 계시면서 극도의 슬픔과 사랑 안에서 쉬지 않고 아드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봉헌하셨음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아들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강했다면,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의 거룩하심과 순명의 믿음은 어떠했으랴!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께 드려야 할 감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마리아께서 우리 모두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당신 아드님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은 너무나 큰 사랑의 희생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사악을 바치는 믿음을 보시고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셨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보다 훨씬 더 고귀하신 하느님의 외아들, 사랑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신 마리아께 우리는 어떤 보답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 성 보나벤투라는 말한다. "마리아의 이러한 사랑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당신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당신의 외아드님을 우리를 위하여 봉헌하신 마리아의 사랑은 다른 모든 이들의 사랑을 초월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마리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아드님께서 오직 불쌍한 피조물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 "나는 잃어진 것을 구하려고 왔노라" (루카 19:10).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그는 죽기까지 순명하셨다" (필립보 2:8). 마리아께서 항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셨다. 당신이 어린 시절 성전에 거하실 때부터 기도에 전념하시며 우리가 구원될 수 있도록 천주 성자를 속히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하느님께 간구하셨다. 그러나 당신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구원하심을 마리아께서 보셨으니 이제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해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 살고 있

는 이들 중에서 마리아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 안토니누스는 이렇게 외친다. "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머니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돌보아주시는지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좋으신 어머니께서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원하고 그 구원을 얻는 데에 가장 큰 협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각자에게 당신의 자비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 복되신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은총을 청하신다면 가장 확실한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베르나르디노 드 부스티스는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려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총을 나누어주신다."라고 하였다. 성 로렌스의 리차드는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 할 때 부르기 전에 먼저 오신다."라고 하였다.

이제, 마리아께서 당신을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조차도 그토록 좋은 분이시라면 당신을 사랑하고 도우심을 청하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베푸실까! 성 알베르또 주교는 말한다. "오 마리아를 사랑하는 이들이 연민과 사랑에 가득차신 그분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한다" (잠언 8:17). 즉 마리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시다는 뜻이다. 성 벨라도는 "사랑 자체 이신 마리아께서 모든 이들을 당신의 자녀로서 사랑하시지만, 당신을 더 다정스럽게 사랑하는 이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였다. 도밍고 수도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한 수사는 하루에 200번씩 자신을 자비의 모친께 맡겨드리는 습관이 있었다. 그가 중병에 걸렸을 때, 그의 옆에 지극히 아름다우신 여왕께서 계심을 보았다. 여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레오나르도야, 너는 죽어서 나의 아들과 나와 함께 와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 수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었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나는 네가 그렇게도 자주 불렀던 자비의 모친이다. 보아라. 이제 내가 와서 너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 날 레오



나르도 수사는 세
상을 떠났으며,
틀림없이 성모
님과 함께 복
된 이들의 왕
국으로 들어갔
을 것이다. 예
수회의 성 요

한 베르크만스
는 이렇게 외쳤다.
"아, 지극히 감미로우
신 마리아여! 당신을

사랑하는 이는 복되나이
다! 내가 당신을 항구하게 사랑한

다 얻을 수 있 을 것입니다." 순교 성인 이냐시오는
이렇게 말했다. "오, 이 좋으신 어머니의 사랑이 그분의
모든 자녀들의 사랑보다 얼마나 더 크신지! 그들이 마
리아를 마음껏 사랑하게 하라." 성인은 성모님을 어찌나
다정스럽게 사랑했던지, 그가 성모님께 대하여 말할 때
모두가 감동하여 성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성
인은 성무 일도와 묵주기도나 염경기도를 바칠 때도 마
치 성모님과 직접 대면하는 애정으로 하였다. 하루는
성인의 장상 신부가 함께 복되신 동정녀의 성화를 방문
하러 가고 있었는데, 그가 성모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
는지를 물었다. 성인은 "신부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저의 어머니이십니다."라고 대답하
였다. 후에 그 신부는 "그 거룩한 청년은 얼마나 다정스
런 목소리와 애정에 찬 표정으로 마음 속 깊은 곳으로
부터 말했는지, 청년의 말이 아니라, 마치 천사가 마리
아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였다.
성 헤르만은 성모님을 그의 사랑의 짹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마리아께서 친히 당신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
문이다. 필립 네리 성인은 성모님 생각만해도 위로로 가
득차곤 하여 마리아를 그의 기쁨이라고 불렀다. 보나벤
뚜라 성인은 마리아를 어머니이시고 마음이며 영혼이라고
불렀다. "하례하나이다. 나의 성모님, 나의 어머님. 아
니,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시여!" 우리도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처럼 성모님을 "사랑하는 이여!"라고 부르
자. 그는 매일 성모님의 성화 앞으로 가서 다정한 대화
를 나누며 당신의 사랑이라고 선언하였다. 성 알로이

시오 곤자가는 마리아께 대한 열정으로 성모님의 감미
로운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 속의 사랑이 즉시
불길처럼 타올랐다. 성 프란시스 솔라노는 "마리아께 대
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분의 성화 앞에서 노
래를 부르며, 악기로 반주하면서 세레나데를 부른다."라고 하였다. 예수회 소속이었던 트레소의 요한 신부는 자
신이 마리아의 종으로 불리우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는 종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모님께 봉헌된 성당에
서 그는 마리아께 대한 사랑의 눈물을 흔뻑 흘렸다. 성
녀 브리지따의 아들이었던 찰즈는 마리아께서 하느님께
로부터 그토록 많이 사랑 받고 계심을 아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으며 마리아의 영
광이 티끌만큼이라도 손상되기보다는 자신이 온갖 고통
을 받는 것을 더 원한다고 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것을 다 하듯
이 우리도 성모님께 그렇게 해드리자.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하더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
시는 것만큼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
드로 다미아노 성인은 "오 성모님, 당신께서는 지극히
인자하시며,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
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나의 성모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보다도 훨씬 더 그들을 사랑하고 계
시며, 초월될 수 없는 사랑으로써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
나이다."라고 하였다. 성 보나벤투라는 다음과 같이 외
쳤다. "이 지극한 사랑이신 어머니의 충실히 종이며 사
랑하는 이가 된 이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동정녀 마리아
여,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심장과 당신께 봉헌된 이들
은 복되나이다."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의 사랑과 공경에
보답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보다도 더 많은 풍성
한 은총들을 내려주신다. 성 안셀모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심장이 당신께 대한 그리움으로 기진해지며, 나의
영혼이 당신의 사랑으로 녹아버리며 타버릴지어다. 오
나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마
리아여! 당신의 은총이 없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나이다. 오 예수여, 마리아여, 나의 공로가 아니라 당
신의 공로로써 나에게 당신께 합당한 사랑을 드릴 수 있
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당신께서는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나이다. 이제 당신과 어머니의 그
감미로운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의 청을 거절하실
수는 없으시겠지요?" □ (퍼온글)



주님, 제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



로제 수사
페제 공동체의 창설자

인간의 언어는 하느님께 우리의 깊은 마음속을 표현하는데 이르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 말 없이도 기도 합니다. 아무 가진 것 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곁에 머무르는 그 자체가 곧 기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침묵도 알아 들으십니다. 그래서 침묵이 때때로 기도의 전부가 됩니다. 그대의 몸과 마음의 가장 메마른 부분에서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기다림과 눈에 띄지 않는 열망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극기심이 샘솟고 또 살아계신 성령이 주시는 내면의 조화가 함께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막처럼 보여지는 이 긴 침묵 속에서도 그대는 부활하신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까? 이 침묵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안에서 용기있는 결단이 무르익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상상이나 사고를 잠재우려 애쓰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면의 침묵을 발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침묵을 생취하기 위한 여러 수단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쓸데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자꾸 산만해진다."고 탄식하는 이에게 복음은 "하느님은 너의 마음보다 훨씬 크다."고 답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제게 무엇을 바라십니까?"라고 그리스도께 묻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많은 것을 바라신다는 것, 그대가 다른 이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믿음에서 생겨난 신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언제인가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에 빠지는 것은 결코 복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걱정한다 해서 자기의 목숨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더

이상 불안스러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상처 받고 뒤흔들리는 사회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 안에서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살아 가며 일하고 고통당하기에, 때로는 반감이 솟아 나기도 하고 증오심이나 지배욕이 생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느님과 그대 사이에 안개 같은 것이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안개에는 이름이 있는데, 분노, 불만, 자궁심, 상실, 열등감, 용서받지 못한다는 느낌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주관적 느낌들이 장애물처럼 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대는 너무 괴로워 하느님을 잊고 싶을 정도입니까? 온전히 자신을 내맡깁시다. 무엇이 그대를 가두고 아프게 하는지, 또 무엇이 사랑하는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지, 그대는 나이가 몇 살이건 어린이처럼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길을 닦아주시도록 내맡깁시다. 그러면 그대는 부활하신 주님이 길거리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세상 어느 구석에서나 그대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대 안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곳까지도 어루만져주십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고 그대는 어두운 생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눈에 뜨지 않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모는 일평생 지속됩니다. 그 변모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하느님의 오늘'이 됩니다. 이 변모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끝도 없는 사랑의 경이... 그대는 놀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셨으나 나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다른 곳에서 나는 이분을 찾아 해매었습니다. 내 깊숙한 곳에 주님이 마련하신 샘물을 멀리 떠나 이 땅을 가로지르며 저 멀리 달렸어도, 나는 막다른 골목을 헤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때가 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분께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으나 이미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던 그때부터 벌써 그분은 보이지 않게 나를 찾아 오셨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장막이 걷히자, 신앙에서 생겨난 신뢰는 나의 어두운 밤마저 밝혀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왜 걱정하느냐... 걱정을 한들 너희에게 되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 믿음의 샘에서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이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자신을 내적으로 키우는데 참으로 필요합니다." □

<샘에서 생기를... 에서 벌훼>

성모 마리아는 더 이상 가톨릭 신자들만의 어머니가 아니다

잡지 Time과 Christianity Today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가톨릭 신자들만의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는 기사를 기재했다. 예수를 낳은 마리아라는 특별한 주제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많은 작가들에게 주목 받아왔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개신교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생애와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주제들은 점차적으로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아왔다.

오하이오 데이튼 대학의 마리아 도서실 신문 편집인이며 마리아회 소속 사제인 토마스 텁퍼슨 신부는 개신교 신자들에게 성모 마리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발전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신학적인 인정보다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의 역할로서 제한된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의 믿을 교리인 - 원죄 없는 임태 - 원죄에 물들지 않고 수태됐다는 교리는 개신교 신자들에겐 아직도 논쟁의 여지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톨릭 뉴스를 전하고 있는 CNS는 그 동안 가톨릭 교리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던 개신교, 성공회, 침례교등의 복음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성모마리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고 전했다. 알라바마주에 위치한 침례교 대학인 샘퍼드 대학의 학과장 티모티 조지 교수는 성경과 역사를 고려할 때 개신교에서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역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지 교수는 2003년과 2004년에 발표하여 많은 신학자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수필집 "천주의 모친 성모마리아"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묵주기도를 하지는 못한다 해도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세기 초기에 남침례교의 신약성서 학자인 A.T. 로버트슨은 "마리아는 그 동안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 모두에게서 올바른 인정을 받지 못해왔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신성시하였지만 개신교에서는 외면해왔다. 또 가톨릭에 공감을 느끼고 마음이 쏠리는 것을 비난해 왔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지 교수는 "우리는 마리아의 모든 것을 받아 드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존경하기가 두려웠다"고 말하며, 개신교 신자들이 마리아를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를 역사적이고, 성서적이며 신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갈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마리아와 함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다"라고 결론지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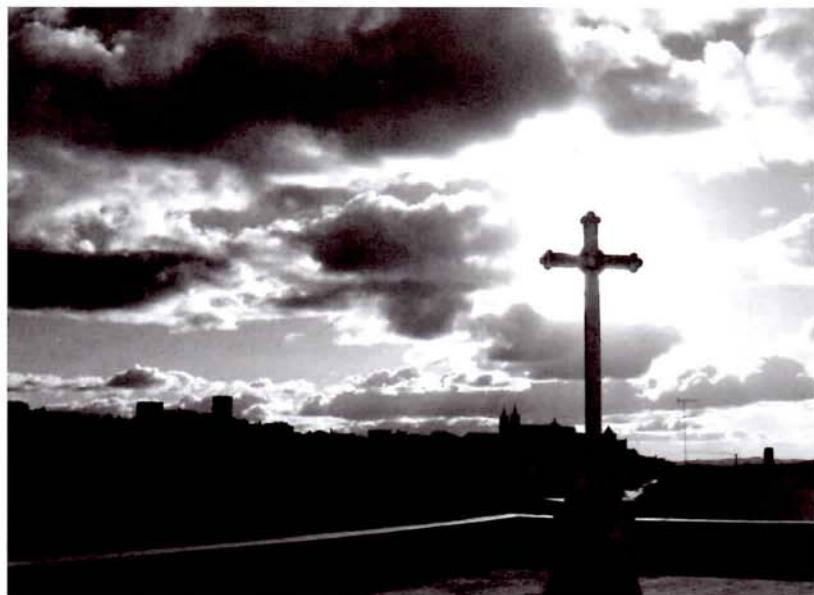
개신교 신자들이 마리아를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를 역사적이고, 성서적이며 신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하면서 . . .

다. 개신교 신학자인 프린스頓 신학대학 교수 베벌리 로버트 거벤타와 어스틴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 신디아 L. 럭비 교수 가 집필한 또 다른 문헌인 마리아에 관한 수필집 "축복받은 사람" 서문에서, 저자들은 이 책의 목표가 -"성모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녀에게서 축복을 받아라" - 라고 권함과 동시에 마리

아에 대한 개신교신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항구적인 신뢰를 추구하고 있다.

마리아는 이슬람교도들에게도 항상 한 부분을 차지한다. 버지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월리암 & 메리 대학의 잔 엘딘 월리암 교수는 이슬람교와 문명을 연구한 학자이다. 월리암 교수와 그의 연구팀은 2002년에 "로마 가톨릭과 쉬아 모슬렘" 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의 두 부분에서 미리암이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코란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신성한 여인, 약속된 메시아의 어머니로 서술되어 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중요한 선지자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된 하느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월리암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가톨릭과 같이 이슬람 수니파보다 소수 민족인 이슬람의 시아파는 성자나 성인의 중재기도를 믿었다고 말했다. 마리아도 성자나 성인의 한 분으로 인간과 신 사이, 또는 알라, 서피스, 다른 이슬람의 종파의 여성상으로 높은 숭배를 받았다. 그러나 이슬람 수니파는 개신교의 캘빈파와 같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프린스頓 대학의 대니엘 L. 미글리오레 교수는 그의



저서 "축복받은 사람"에서 예수님이 오직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고, "마리아의 헌신적 사랑은 성경 메시지의 은총 만으로의 구원, 믿음 만으로의 구원, 예수님만으로의 구원의 메시지를 흐리고 있다"는 중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월리암 교수는 이슬람은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기톨릭과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중동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마리아 대해서 마음 깊이 공경하는 것을 자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리아의 시디스에 위치하고 있는 Our Lady of Convert 동방 정교회에서 독실한 이슬람 신자들이 기도할 때 쓰는 융단을 깔고 기독교 신자들과 함께 복음사가 루카가 그린 마리아의 성화에 치유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공경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1960년대 후반에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마리아의 발현을 보기 위해 이집트에 있는 콥티 정교회 성당에 모였다. 카이로 도시에 위치한 동정녀 마리아 교회의 둑근 지붕 위에서는 1968년에 시작해서 1년 넘게 성모님의 발현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그 당시 월리암은 교회에 이슬람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물었다. "이슬람 신자들이 그리스도교의 교회에 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마리아는 당신에게 헌신적인 교회에 발현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도 발현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은 그 징표를 1967년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하느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큰 위안의 표시로 받아 들였다. □

(Spirit Daily에서 발췌)



소신학교 시절

사브리나 꼬비치
남기옥 마르타 역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 기억을 정화하시는 성령의 영을 보내주시어 저희 과거의 기억과 생활이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성령을 보내 주시어, 이 시간이 당신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봉사가 되게 하소서. 보호자 어머니, 평화의 여왕이며 거룩하신 동정마리아님, 오늘이 아니라 모든 날을 당신 사랑의 베일 속에 있게 하시며 저희 또한 당신의 보호 아래 맡깁니다. "너희가 필요하고, 나를 위해 너희는 중요한 사람들이다."(1986.4.24) 자주 이렇게 말씀하신 성모님, 당신의 그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나이다. 항상 겸손하게 당신께서 순종하셨듯이 저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소서. 저희를 필요로 하시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오, 동정이시며 거룩하신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우리의 보호자이시여! 성령의 힘으로 저희를 채우시어,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 하느님! 평화의 영, 사랑과 진리의 영, 빛과 온총의 성령을 저희에게 내리소서.

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

평화어머니, 평화의 여왕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프란치스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질문 : 신부님, 소신학교 때의 생활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조 신부 : 저는 16살 때 교회와 신앙, 성소에 대한 굳건한 열정을 가지고 소신학교로 떠났어요.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성소는 마음에서 받은 하느님의 부르심이고 선물이니 제가 책임지고 잘 보호해야 한다고 하시며 부모로서 믿어 주시고 실천해주셨습니다. 저는 수도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부모님의 말씀이 옳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사제 성소를 받은 사람을 항상 도와주고, 그 사제나 수도자 곁에서 항상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

든 사제 성소는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것이라서 그 뒤에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축성하시고 교회를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또 우리 사제들을 교회가 보호해야 하고 신자들은 사제들을 위해 사랑과 기도로 두 손을 모우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집을 떠나 소신학교로 가는 날 버스가 출발하면서 부모님의 얼굴이 멀어질 때, 제가 홀리던 눈물은 저희 부모님의 순수하심과 말씀과 사랑 안에 있는 영적인 보호를 깨닫게 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진다는 것이 정말 슬펐습니다. 이 때 누군가가 "이제 바다를 보게 될꺼야!" 라며 소리쳤어요. 산길을 돌았을 때 바다와 브라츠 섬이 보였어요. 스플릿 터미널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렸는데, 제게는 정말 엄청난 도시로 보이고 생명력이 넘치고 있더라구요. 처음 배를 탔습니다. 그 날 많은 것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부모님과 헤어진 사실이 하루 온종일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었죠. 진짜 슬펐습니다.

질문 : 신부님은 그날 처음으로 바다를 보셨나요?

요조 신부 : 네,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어요. 배가 돌면서 고동을 울렸을 때 시커먼 연기를 내 뿐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려다 본 바닷물은 깨끗하지도 않았고, 저희 동네 강물처럼 맑지도 않았어요. 물고기들도 없었고 큰물고기들이나 상어들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바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학교에 도착했지만 웃고 떠드는 애들이 없었어요. 좀더 큰 형들이 우리를 웃기려고 했지만 여행에 지쳐있었고 집을 떠나온 것으로 모두 우울했어요. 신학교에는 저희 마을 출신들이 11명인가 12명 정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친구는 일 주일이 지났는데도 침실에서 일어나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신학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2주째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 친구를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 때 신학교에서는 수면시간, 오락시간, 산보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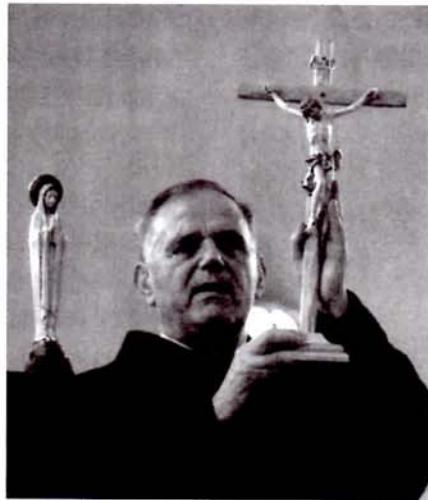
겠다는 생각에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그런 산보를 해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해서 무척 힘이 들었어요.

질문 : 평소에 산보가 익숙하지 않으셨나 보지요?

요조 신부 : 그렇지는 않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신학교에는 밭일을 할 수 있는 트랙터가 있었는데, 저는 정원을 돌보거나 포도밭을 가꾸는 일 즉, 밭 일을 좋아했어요. 수업이 시작하면서 교수님들은 우리들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책을 배부하셨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이쿠, 글쎄 우리들은 모국어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때 까지 우리를 가르친 교사들 모두가 마케도니아인, 몬페네그로인, 혹은 세르비아인들이었거든요. 크로아티언인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국어를 모르고 있었다는 황당한 사실을 소신학교에서 겨우 발견했지요.

질문 : 모국어인 크로아티어를 모르셨군요?

요조 신부 : 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소신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크로아티아어와 국문법을 배웠어요.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인내심이 경이로웠습니다. 소신학교의 과정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신학교 공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서 모국어인 크로아티아어, 문학, 교리를 배우고, 저는 현대어로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선택했어요. 영어를 배우는 그룹도 있었어요. 교수님들은 무척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진짜 많이. 실력이 높으신 분들이었지만, 인간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적인 당신들의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 섬 출신이셨던 루비노신부님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들이 헤르체고비나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듯 무척 아껴주셨어요. 우리들과 마주칠 때면 수도복속에서 치즈 조각을 꺼내어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신부님이 보여 주신 신앙과 믿음은 대단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성인 같은 모범을 보여준 그분의 삶을 저의 사제직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아껴주시던 수녀님들은 우리가 돌밭에서 놀다가 웃이 찢어져도 참고 기워주시던 엄마 같



은 분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아이들 조차도 필요한 것을 갖지 못하던 정말 비참한 시기였어요. 가게에서는 팔 생필품이 없었고 공산당 정부가 상점 개업을 허락하지 않아서 소수의 사람들만 일을 했어요.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항구에 도착한 배의 선장이 그 섬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형님께서 마을의 어떤 본당 신부님이시기도 했어요. 그분은 신학생들은 많은데 신학교 살림이 형편없는 것을 보시고 빵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 식당 식탁에 놓인 소쿠리마다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그 흰 빵을 마음껏 먹으며 얼마나 행복했었던지, 우리들의 그 마음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질문 : 부모님들은 신부님께서 계시던 신학교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조 신부 : 아니요. 진짜로 부모님들이 우리 신학교를 방문하셨다면 그분들의 잠자리 때문에 큰 문제였을 거예요. 잠잘 곳 조차 없어서 신학생들은 복도에서 자야 했으니까요.

질문 : 그 당시 우정을 맺으셨던 동료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하시는지요?

요조 신부 : 물론이죠! 우리 동기들이고, 대부분은 제 고향 친구들이었으니 당연하죠! 지금도 가끔씩 만나서 옛날 일들을 기억하곤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건강상의 이유나 어려운 공부 때문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문서들이나 수업내용 거의 교회의 언어인 라틴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국어같이 잘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질문 : 학교에서 라틴어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요조 신부 : 그럼요! 필수적이었어요! 2년 라틴어를 배우고 나니까 고전을 번역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제게는 라틴어 책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틴어는 모든 교회의 언어입니다.

질문 : 신부님의 학교 생활은 어떠셨으며 가장 좋아하시던 과목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요조 신부 : 저는 맷고 끊는 게 분명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자연과학과 생물학, 화학, 역사를 좋아하고 수학은 너무 싫어했어요. 특히 역사와 생명을 다루는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영어교수님만 제외하고는 모든 교수님들은 수도자들이셨어요. 그 당시 볼 해변은 모든 그 지역에서 가장 멋진 모래사장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소풍을 다닌 지역으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수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고, 그곳에서 바람의 각기 다른 이름도 배웠습니다.

질문 : 가끔씩 다른 곳에서 방학을 지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조 신부 : 집에서 방학을 보낸다는 것은 거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소를 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보다 그 당시 신학교의 규율 때문입니다. 신학교가 도미니꼬 성인에게 봉헌된 곳이라 8월 8일 성 도미니꼬 축일이 되면 당연히 신학생들은 모두 모여서 축일을 지냅니다. 그것은 저희 학교의 중요한 축제였어요. 학교 축일을 신학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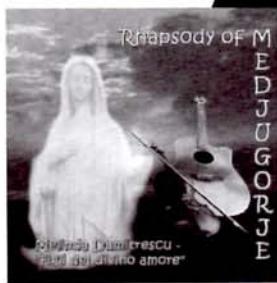
지내고 난 뒤, 어느 정도 집으로 돌아 갈 수 있었지만 새 학년이 9월 초에 시작하니까 집에서 며칠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 당시 공산정부에서는 그 신학교를 인정하고 받아주었습니까?

요조 신부 : 마케도니아와 슬로베니아 혹은 크로아티아의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도회 학교는 사학으로 규정되었고, 클래식 인문계 고등학교는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클래식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고전어와 두 개의 현대어를 더 배웠습니다. □

(이 기사는 요조 조브코 신부님의 지나 온 삶을 책으로 출판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한 내용 중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곧 한국어로 출판 될 예정이며 번역은 남기옥 마르타 자매님이 하셨습니다. -편집 부-)

주님 저희와 함께 메무소서



이 음악에는 성모님과 함께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흠숭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성시간 노래와 음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래와 음악들이 간단한 가사와 짧고 반복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흠숭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과 단체 성시간, 그리고 각종 피정과 교육시 유용한 음악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평화의 모후이신 우리의 어머니 복되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 신부 신경남 스테파노 -

- 옥수동 성당의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교리에 서적 보급
- 슬라브코 신부님의 책 '성시간' 마음을 다해 내 아들을 흠숭하여라'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번역/ 신경남신부



구입처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오로 딸 및 성바오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캐나다 : 이 테레사 (403-288-0469),

하느님의 선택

당신이 하느님께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이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방주를 만든 노아는 술주정뱅이였으며,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늙은 노인이었고 이사악은 공상가, 야곱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지요. 레아는 못생겼었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과 질투를 받아 버림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모세는 말을 못하는 컴플렉스가 있었지요. 기드온은 두려워했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었으며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고 예레미아와 디모데오는 나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시편을 만든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살인까지 하였지요.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이었으며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 요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없는 과부였고 육은 가족이 모두 죽었으며 재산을 모두 잃고 온 몸에 심한 부스럼증을 앓고 있을 때 믿던 친구들까지 그를 조롱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벌레를 먹고 살았으며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으로 선택하신 베드로 사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잠을 자고 있었으며 마르타는 일을 할 때 걱정부터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간음하던 여자였으며 사마리아의 여자는 몇 번씩이나 이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캐오는 키가

너무 작았으며 바오로는 완고한 율법주의자였으며, 디모데오는 위궤양 환자였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라자로는 죽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족함들은 그대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대를 쓰시고자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부족한 당신이지만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기에...
아직도 당신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엄마로써 너희에게 간절히 애원한다. 부디 너희의 마음을 열고 나에게 바쳐다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두도록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분을 사랑하도록, 그분께 완전히 속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드님 없이는 구원될 수 없음을 알아다오. 그분이 너희의 모든 시작이며 끝이심을 깨달아야 한단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만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너희 엄마로써 너희에게 간절히 바란단다.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2년 3월 18일 미리야나에게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 **M**



마리아를 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나요?

윤 종식 디모데오/ 의정부 교구

전례학 박사 과정 로마유학/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저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발행하는 '메주고리예' 소식지를 서점에서 무료로 주기에 받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종파를 초월하여 신앙 생활에 무척 유익한 기사와 특히 천주교 신자들의 마리아에 대한 열성적인 신뢰와 믿음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와 제 주변에는 천주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개신교 신자들이 많지만 아직은 개신교 신자들이 마리아와 함께하는 신앙 생활이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하느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피조물인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는 겸손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느님보다 높이는 것은 우상화하는 것이 아닐까요?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통하여 확실한 답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LA에서 민현식 드림 -

먼저 앞으로 사용할 용어들을 먼저 정의하는 것이 보내오신 질문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어 사용에 있어서, '천주교'(天主教)와 '개신교'(改新教), 그리고 '기독교'(基督教)라는 중국에서 시작된 용어보다는 본래 유럽에서 사용했던 '가톨릭'(Catholic)과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그리스도교'(Christianism)라는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날 한국의 교육 수준은 유럽의 원전 용어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뿐 아니라, 용어 자체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들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를 의미하며, '프로테스탄트'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에서 갈라진 이들을, '가톨릭'은 좁은 의미에서 보통 베드로로부터 이어온 사도직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을 말합니다. 우선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님을 낳으신 동정녀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믿어야 할 교리로 선포한 4가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믿을 교리인 교의는 공의회와 교황님에 의해 발표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

리는 1)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1월1일 대축일, 예페소 공의회 431년), 2)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553년), 3) 원죄 없이 임태되신 마리아 (12월8일 대축일, 비오9세 1854년), 4)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8월15일 대축일, 비오12세 1950년)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모 공경은 그리스도교 제자 공동체까지 소급이 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모마리아와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 19:27)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 1,14). 종교 개혁 이후에 갈라진 프로테스탄트에서도 초기에는 마리아를 존중 하였으나, 가톨릭과의 첨예한 교의논쟁으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분리시켰습니다. 특히 한국의 프로테스탄트는 성모상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천주교인들과 가톨릭 교회의 마리아 공경을 우상 숭배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종교를 개혁한 마틴루터는 천주교를 떠난 후에도 미사성사와 성체 성사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그의 저서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 볼 때 외국과는 달리 유독 한국의 현 프로테스탄트의 마리아 공경에 대한 우상숭배론은 초기 종교개혁론과는 많이 변질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참고: 하느님의 자애로운 성모께서 몸소 저에게 영을 주셔서 당신의 찬가를 유익하고도 철저하게 해설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루터 선집 제 3권. 274-275p- 하느님을 찾으셨으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비나이다. 같은 책, 297-298p-) 마틴루터의 저서에서 볼 수 있듯이 현 프로테스탄트의 마리아 우상론은 초기의 종교개혁안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의 역사와 의미를 가톨릭의 역사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가톨릭 교회를, 마리아를 여신으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며 좋은 길입니다

로 숭배하는 '마리아교'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 이유들 중 하나가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호칭을 선포한 에페소 공의회 (431년)에서는 오히려 그 당시의 로마에 만연하고 있던 여신 론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이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그 당시 유명한 신학자들의 신학적 토론과 논쟁을 거쳐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믿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에페소 공

의회에는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 되심'은 마리아께서 여신이심을 뜻하지 않고,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신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결론지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느님'이자 '온전한 인간' 이시며,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와 본질이 같으시다고 신앙 정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칼 케돈 공의회 (451년)는 "하느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마리아께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인간 이시라는 것을 재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피조물인 마리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인간인 마리아에게서 탄생되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성령과 더불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신성을 강조한 것이며 동시에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프로테스탄과 가톨릭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성모 마리아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 38). 우리는 엘리사벳의 찬송을 통하여 구원에 동참하는 신앙의 기초가 된 성모 마리아의 순명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 45). 이에 마리아는 "이제로부터 온 세상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라는 대답으로 피조물에게 내려주신 창조주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축복이 영원하심을 믿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선택되신 성모님은 순명하는 믿음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또한 성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셨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이는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잘 드러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집의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하신 성모님의 말씀은, 시나이 산의 계약에서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탈출 19,8; 24,3,7)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성모님이 당신의 육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이심을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마태 12, 48-50). 또한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요한 19,27)라는 말씀으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되심으로 우리의 어머니도 되셨습니다. 현 시대는 물질만능주의와 삶의 철학 부재로 믿음으로 가는 길이 마치 미로처럼 얹혀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하느님'과 '성경' 그리고 '믿음'의 세 가지를 가장 모범적으로 살아가신 동정녀 마리아는 가톨릭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배이며 예수님께 가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이정표입니다. □



예수님!

저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I)

슬라브코 바르비리치 신부 지음
신경남 신부 옮김

(이 기도문들은 예수 승천 대축일이 지난 다음 성령 강림 구일기도를 바칠 때 사용하면 좋다.)

1) 성령이시여, 제 안에 머무소서!

성령이시여, 제 안에 불을 놓으소서!
성령이시여, 제 안에 활동하소서!

2) 예수님,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저희들에게도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당신의 그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마리아와 사도들과 함께 당신께 기도 드립니다. 마리아와 사도들은 구일 동안 함께 줄곧 기도했고, 당신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리아여, 당신께서는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실 것이기에 당신께 감사 드리나이다.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밤 나는 너희가 구일 기도를 바치는 이 때에 너희의 가정과 본당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기도하여라.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너희의 삶의 끝나는 순간까지 너희가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너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1984년 6월 2일)

- 예수님, 저는 마리아와 함께 당신께 간청합니다: 저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침묵 중에 이 청원기도를 반복한다.)

3) 예수님, 당신 사랑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그러면 당신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심판 날에 당신께서 제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제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당신을 알아 봤고 그들을 사랑했는지 제게 물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사랑하셨던 그 방식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 예수님, 제 마음 안에 당신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침묵 중에 이 청원기도를 반복한다.)

4) 예수님, 저에게 당신의 지혜와 지식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시대에 걸쳐 당신께 찬미와 감사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지혜롭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소서. 저는 참된 지혜를 필요로 하고, 당신께서 바로 그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제게 그 지혜가 있다면 항상 당신께서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지 식별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당신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에 저는 당신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든 사람들, 선생님, 가정교사, 모든 교수들, 정치인들, 다른 이들을 지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군 지휘관들에게 당신 지혜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 예수님, 저에게 당신 지혜와 지식을 성령을 보내주소서! (침묵 중에 이 청원기도를 반복한다.)

5) 예수님, 당신의 성령은 나약한 사람들을 굳세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쉽게 죄에 떨어지고, 유혹에 굴복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회피하는지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저에게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굳센의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젊은이들에게 당신의 굳센의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맞설 수 있도록 해 주소서. 병자들과 장애인들, 마음이 괴롭고 우울한 사람들, 그리고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굳센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 예수님 당신 굳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약한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주소서!

(침묵 중에 이 청원기도를 반복한다.)

6) 예수님, 당신의 의견과 분별의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소서. 이 세상은 너무도 많은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이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들에게 의견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악의 의견을 따르며 갈등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부모, 교사, 의사, 설교자 그리고 고백 사제들에게 당신 의견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 예수님, 저희에게 당신 의견과 분별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침묵 중에 이 청원기도를 반복한다.)

7) 예수님, 제 마음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경건과 '거룩한 두려움'의 당신 성령을 보내주소서. 저희의 마음은 너무 굳어 있어 당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나이다. 저희는 당신과 참되고 성실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무신론과 물질주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밀착되어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서 자라시지 않을 때, 상처 주는 말, 거짓말과 혐혹, 시기와 질투, 혼란과 고민, 폭력과 파괴, 완고함과 교만, 미움과 화해 거부, 계으름과 식탐 그리고 무신론과 도덕적 변태의 영과 같은 다른 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예수님, 경건과 '거룩한 두려움'의 당신 성령을 보내주소서! (침묵 중에 이 청원기도를 반복한다.)

8) 온 교회와 함께 저는 기도합니다: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시여
찬란한 당신 하늘 어좌에서 내려오소서
오시어 저희들 영혼을 차지하시고
저희를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위로자
하느님의 가장 좋은 선물
살아 계신 샘이며 살아 계신 불
향유, 참된 사랑이시나이다.

하느님 오른 손의 손가락이여
당신의 일곱 가지 은사를 내리시여
작은 이들이 그분의 약속을 말하고
이해하도록 가르쳐주소서.

오 당신의 복되신 빛으로 저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당신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의 죽을 몸에 힘을 주소서.

저희를 죽음의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저희를 참된 평화에로 인도하여주소서

저희를 모든 위험에서 구하시어
당신의 거룩한 날개 아래
안전하게 인도하여주소서.

저희가 당신을 통하여 성부를 알고
영원하신 아드님을 알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크신 위로자이신 당신께서는
세세에 영원히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9) 성령께 드리는 호칭기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푸소서!
하느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세상의 구원자이신 아드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성령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 분이신 거룩한 삼위일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이시여 저희 마음에 오소서

지혜와 지식의 성령이시여	"
의견과 굳센의 성령이시여	"
지력과 경건의 성령이시여	"
거룩한 두려움의 성령이시여	"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의 성령이시여	"
기쁨과 평화의 성령이시여	"
겸손과 온유함의 성령이시여	"
인내와 겸손의 성령이시여	"
순수와 무죄함의 성령이시여	"
충성과 투명함의 성령이시여	"
거룩함과 정의의 성령이시여	"
완전함의 성령이시여	"
하느님의 선택된 자녀들의 성령이시여	"
교회의 교사요 보호자여,	"
인간의 마음의 탐구자여,	"
천상 은총의 분배자여,	"
아픈 이들의 위로자여,	"

영원한 빛이시여, "
 타는 불이시여, "
 생명의 샘이시여, "
 영적 일치여, "
 천사들의 기쁨이시여, "
 성조들의 빛이시여, "
 예언자들의 영감이시여, "
 순교자들의 용기시여, "
 증거자들의 변호자시여, "
 성인들의 지복이시여, "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님, 저희를 보호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악에서 오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원수의 유혹에서
 허위와 거짓의 영으로부터
 미신의 영으로부터
 교만과 시기의 영으로부터
 모욕과 무례함의 영으로부터
 비도덕의 영으로부터
 정욕과 게으름의 영으로부터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의 영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에 대한 반대하는 영으로부터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영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에서
 죄인들이 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당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쇄신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하오니
 당신 교회를 인도하고 지켜주시기를 구하오니
 우리 교황을 비추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하오니
 교리적인 오류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구하오니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고, 그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시기를 구하오니
 젊은이들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구하오니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영감으로 비추어주시기를
구하오니
 저희에게 인내의 은총을 주시기를 구하오니
 연옥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니
 저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를 구하오니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오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오 주
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저희에
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알렐루야!
 - 당신께서는 온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시리이다!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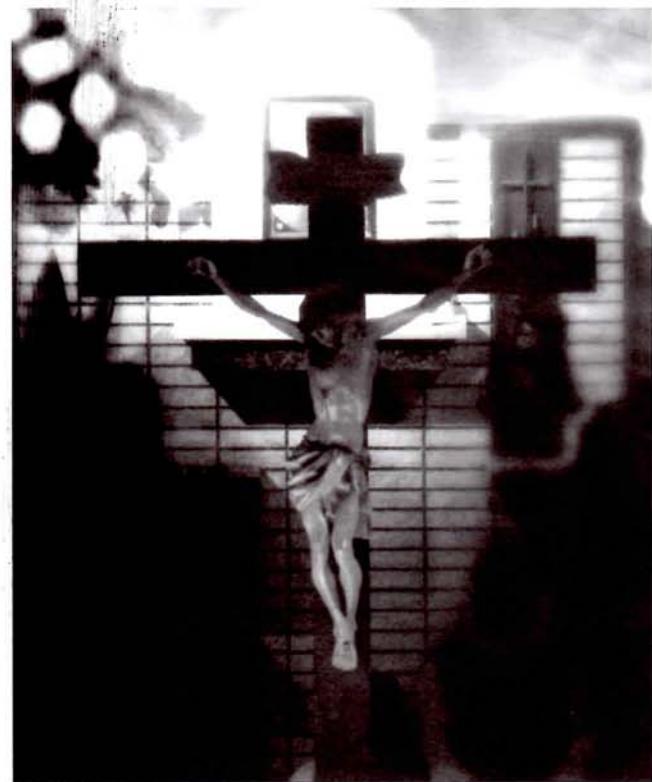
기도합시다.

오, 당신 성령의 빛으로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밝게 비
추어주신 하느님, 그 성령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저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슬기로와지고, 늘 기
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0) 축복

예수님, 당신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비추어 주소서. 당신
성령의 은사로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
시며 내적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저희에게 당신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소서. 예수님,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
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V**





성모님!

늘 5월이 되면 저희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께 감사와 찬미드리는 성모의 밤을 마련합니다.
지난 일년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난 한해 동안에도 부족한 저희들을 돌보아주신 당신의 큰 사랑에
기쁘고 슬펐던 행복하고 불행했던 사연들을 가슴에 모아
당신께 위로 받고 감사 드리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침묵과 겸손 그리고 당신의 잔잔한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주시며
저희도 당신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시며 많은 고통을 인내하신 어머니
당신의 고통의 시간은 저희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닳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사랑과 희망이신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좋은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어머니
당신의 변함없는 이끄심 속에서도 저희는 자주 유혹에 넘어지며
제 뜻대로 살다가 아파하며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움을 청하면 오히려 고마워하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당신이 계시기에 저희는 든든합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조건 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요
저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쉴 곳이 되어주시는
당신이 계심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요
저희가 살아 숨쉴 때나 저희의 영혼이 죽을 때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당신이 계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어머니!

당신이 저희의 삶 안에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찾게”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파서 눈물 흘릴 때 같이 아파하시며 위로와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길을 잊고 방황할 때 저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을 새워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한 성모 마리아님!
당신은 진정 저희의 어머니 이십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의명의 순례자)

성모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제 11 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 김훈 윤리아노 옮김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 묵상: 시편 22, 16-19

저의 힘은 옹기 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뼈는 낱낱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콜로 : 2, 13-14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묵상기도:

오, 예수님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서 세 번씩 넘어지시며 모든 기력이 소진된 후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이 지고 오신 그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적을 통한 신앙이 아니라 선택하는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 가운데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모두 짊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화해와 용서의 주 예수님이! 저는 남들의 불쾌한 처사와 공격에 대해 분노와 격분으로 대응하여 자신이 승리했다고 만족해 왔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화해하고 그를 용서하

기보다 대화조차 피하며 형식적 화해를 했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이며,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못 박는 저의 모든 악습과 욕정을 없애주소서! 제 마음에서 증오와 시기, 질투심을 깨끗이 없애 주시어 '육체의 법'이 아닌 '영혼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공로를 얻게 해주소서.

예수님! 소수 부정축재자들에게 이용당해 십자가에 못 박힌 빈민층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가난을 보상해주소서. 부모의 비윤리적이고 부정직한 행동으로 못 박혀 신음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하루빨리 회개하여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할 수 있게 해주소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 특히 분쟁이 있는 나라들의 모든 분쟁들을 주님의 십자가와 구속공로로 없이 하여주소서.

예수님! 나약한 제가 다시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욕정, 탐욕,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교만과 모든 죄들의 악습에서 저를 해방시켜주소서. 주님의 회생으로 새로 태어난 제가 평화와 사랑, 화해와 용서의 순결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해주소서.

성모님! 악당들이 짙은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내려치는 망치소리와 주님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칠 때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날로 찔리듯, 뼈를 깎듯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아버지 하느님의 구원계획이 이루어짐을 확신하셨기에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성모님! 간청하오니 제 마음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근원들을 없애 주시어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소서. 이제부터 저의 죄 때문에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제 저

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통하여 회생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소서.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감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하느님께 너희 자신을 좀 더 열어드리라고 너희를 부른다. 그래야 그분께서 너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 너희 자신을 개방할수록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기도하라고 너희들에게 요청하고 싶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서 고맙다." (1986. 3. 6)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 12처로 항하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M

April 1st, 2007

안녕하세요.

'메주 고리예' 지를 항상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메주 고리예지를 읽을때마다 거의 울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주님의 사랑과 감동 속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생활이 느슨해지고, 초중에 빠져있을때 주님께 다시 눈돌리게 해줍니다. 글의 힘이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일미사를 거룩하게 보냈다 해도 돌아서면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제 모습인데요, 메주 고리예지는 마치 주님과 성모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때마다 찾아와주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메주 고리예지에서도 어김없이 주님의 수난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순시기를 대충 보내던 저에게 주님의 고통의 신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항상 마음 속에 있던 감사의 말씀을 이제서야 글로 적어봅니다. 그리고 간행물 만드실때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행물 만드실때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많이 사람들 이 메주 고리예지를 받고 많은 은총을 얻는다고 생각하시고, 험내세요!!!!!!



메주고리예는 평화의 오아시스

신경남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성모님을 친 엄마보다 더 친한 어머니로 사랑하고 의탁하세요.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예수님께 갈 수 있을 겁니다. 성모님의 역할은 우리를 온전히 예수님께 이끌어 주시는 것이니까요."

평화의 모후 선교회(회장 남홍익)의 신경남 지도신부가 지난

19일과 20일 오렌지 카운티와 LA를 각각 방문해 메주고리예 음악을 통한 치유의 성시간을 진행했다. 신 신부는 해마다 남가주를 방문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보속의 삶을 촉구하는 메주고리예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에 위치한 메주고리예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모 마리아가 발현해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90년 서품 받은 신 신부가 메주고리예를 처음 방문한 것은 2002년 봄이었다.

"그전까지 성모님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신학적 명제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을 저의 실제적인 어머니로 받아들이진 못했었어요. 오히려 성모님 때문에 예수님께 가야 할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었죠. 하지만 메주고리예를 방문해 성모님의 현존을 깨닫고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회개하면서 더 깊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 신부는 이후 남홍익 회장과 함께 평화의모후선교회를 이끌며 메주고리예에 대한 소식지를 만들고 성모신심에 대한 책을 발간하는 한편 메주고리예 음악을 통한 치유 미사와 성시간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 전적으로 하느님께 의탁하고 회개하며 삶 전체를 하느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되돌리라'는 메주고리예 메시지의 핵심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그는 "카드빚을 내서라도 메주고리예에 가보라고 신자들에게 농담을 하곤 한다"며 웃어 보였다. 개인의 회개, 성소식별, 가정의 성화 등 지금껏 순례객들이 맷어온 신앙의 열매가 메주고리예의 힘을 말해준다고도 강조한다.

"지금껏 3500만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메주고리예를 찾았

**바티칸은 메주고리예를
찾아 오는 전 세계 순례객들을
위해 주교들의 사목적 배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요. 구경거리라곤 아무것도 없지만 평화와 기도가 흘러 넘치죠. 곳곳에서 성모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언어 국적을 초월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성모님을 통해 기도 드리는 모습 자체가 큰 감동이예요. 그야말로 '평화의 오아시스'죠."

신 신부는 또한 "메주고리예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주고리예 발현과 계시의 초자연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여전히 개방되어 인준을 위한 조사 중입니다. 또한 바티칸에서는 이곳에서 성모님에 대한 건강한 신심행위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성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며 전 세계 순례객들을 위해 주교들의 사목적 배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메주고리예는 현대 영성의 중심지이며 그 곳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신경남 신부는 더욱 성모 마리아에 봉헌된 삶을 살기 위해 오는 7월 서울대교구에서 미주 동부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카푸친 프란치스코 수도회로 적을 옮기게 된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펜실베이니아 지역에 470 에이커 규모의 대지를 마련하여 성모 신심 센타의 역할을 할 '어머니 마을'을 준비 중이다.

"무신론과 물질주의의 상징이자 더 많은 영적 회개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 곳 미국인 것 같아요.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로서 '어머니 마을'이 신자들의 신앙적 갈구를 해소하고 기도와 회개를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할 겁니다." **M**

(중앙일보 2007년 4월 25일 종교란 기사를 정리한 것임)

그대 . . .

그대!
집떠남 두려워마오
구름 불 기둥만 곧장 따라가오

가다가 사막의 갈증,
그대 가난한 가슴에 상처나거든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오,

갈리리 호수라고
잔잔하지만은 않은것,
넘어지고 깨어지면서도
님의 웃자락 놓치지마오,

그대!
나섬은 출가요 새로남,
끊음, 아픔, 십자가의 길이라오
그래서 선택인것, 기쁨인것,
자유의 길인 것,

그대 가는 곳 하늘마을
다시 생각해 보아도
참 잘 나셨오.

작가미상



나의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발현목격증인 미리야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미리야나는 6명의 발현목격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며 1982년 12월 성탄절에 성모님으로부터 정화의 시기에 이 세상에 일어날 10 가지의 비밀을 받았다. 성모님께서는 이후로는 그녀의 생일인 매년 3월 18일에 오시겠다고 하셨으나 미래에 일어날 10가지 비밀을 아는 미리야나가 몹시 고통스러워하자, 현재까지 매달 2일에 발현하시어 메시지를 주신다. 그녀는 특별히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 편집자 주 -

질문 : 복되신 성모님의 발현이 당신을 더 깊은 기도생활로 인도했나요?

미리야나 : 네.

질문 : 당신을 포함한 여섯 명의 목격증인들에게 기도할 때 복되신 성모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과 천상왕국 그리고 성모님과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셨다지요? "나의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성모님께서 주신 가르침에 응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나요?

미리야나 : 복되신 성모님께서 함께 기도하실 때 저는 혼자서 기도할 때 느낄 수 없었던 어떤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

질문 : 미리야나,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미리야나 : 기도할 때면 언제나 복되신 성모님께서 제 마음 안에 현존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을 단식하도록 인도하셨습니까?

미리야나 : 네, 그리고 다른 목격증인들에게 금요일과 수요일에 단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혼에 매우 유익한 어떤 특별한 은총을 청할 때는 한 주에 사흘 단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단식이 그렇게 유익한가요? 이반카가 말하기를 "단

식은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고 하던데...

미리야나 : 단식은 정화와 단련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과 육체의 욕구를 극복하고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하게 해주지요. 특히 단식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 줍니다.

질문 : 미리야나, 슬라브코 신부님은 단식은 은총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데 당신도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미리야나 : 물론이죠. 저는 단식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질문 : 미리야나, 당신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리야나 :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단식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처음 발현하셨을 때 신부님들은 목격증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미리야나 : 처음에는 우리들을 지켜 보셨으나 그 후에 발현을 인정하셨지요.

질문 : 당신의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 주었지요? 충격적이었을 텐데...

미리야나 : 저희 가족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지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머리가 희어지셨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 가족들은 함께 있었습니까?

미리야나 : 여러 차례 함께 있었습니다.

질문 : 가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나요?

미리야나 : 저희 가족이나 저는 성모님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별도로 메시지를 주실 이유가 있겠어요? 저희 가족이 다른 가족들보다 더 중요할 것이 없지요.

질문 : 미리아나 당신은요?

미리아나 : 저는 성모님의 다른 자녀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다 그분의 자녀들이니까요.

질문 : 미리아나, 발현 초기에 당신은 루르드나 파티마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미리아나 : 발현 이전에는 복되신 성모님께서 지상에 발현하셨다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살던 사라예보는 공산주의자와 무신론자의 도시였으니까요. 저는 성모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발현이 시작된 후에 비로소 루르드와 파티마에 관한 책을 읽어보게 되었어요.

질문 : 학교와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당신의 집에서 매일 당신에게 발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미리아나 : 만약 처음에 그들이 알았다면, 저는 당장 학교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그후 소문을 들은 공산정부 관리들이 저에게 학교를 떠나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발현에 관해 전혀 알려지지 않는 다른 학교로 저를 전학시켜 주셨어요.

질문 : 학교에서 대단히 외로웠겠군요?

미리아나 : 저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질문 : 십자가를 걸고 다닌 일이 있습니까?

미리아나 : 항상 복되신 성모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느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 주는 표징으로 십자가나 매달, 스파클라 등 축성 받은 성물들을 몸에 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 학교에서는 언제부터 박해받기 시작했나요?

미리아나 : 그들이 발현에 대해 알게 된 후이지요. 발현에 대해 알게 되자 선생님들은 저를 조롱했고 비웃었습니다.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질문 :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랬나요?

미리아나 : 꼭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여선생님은 저를 도와 주었습니다. 학기말 시험이 다가왔을 때(이 나라에서는 모든 학생이 이 학기말 시험을 통



성모님의 발현을 보는 목격 증인들

과해야 합니다) 경찰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이 학기말 시험에서 저를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들은 제가 시험을 치지 못하게 학교에 명령을 내린 것 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제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도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직원들이 알지 못하게 모든 것을 은폐하여 제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정말 저를 도와 주었습니다.

질문 : 복되신 성모님께서 그 선생님이나 학교에 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리아나 : 복되신 성모님께서는 한 번도 제가 어느 면에서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느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갈 때마다 최선을 다하라고 어머니로써 격려해 주셨습니다. 학교를 포함해서요. 공산 정부는 제 학업에 늘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질문 : 매일 저녁 발현하시던 성모님의 발현이 끝났을 때, 당신은 몇 살 이었지요?

미리아나 : 열 일곱 살 이었지요.

질문 : 그건 대단한 도전이었겠군요. 미리아나,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일들을 다 체험해야 했으니! 그 중요한 발현들을 당신은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지요?

미리아나 : 복되신 성모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

<Visions of The Children / 어린이들이 본 메주고리예의 성모마리아에서 발췌>



이 시대는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멀리 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젊은이들의 축제 유스 훼스티발

편집부

메주고리예 성 야고보 본당은 매년 8월 첫 주에 젊은 이들에게 살아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는 젊은이들의 축제를 열고 있다. 이 행사는 1988년 8월 15일 성모님께서 몹시 슬픈 표정으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영육 간에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고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씀하셨다는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님이 젊은이들을 위해 만드신 프로그램이다. 이 곳을 찾아 오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이 행사를 통하여 자신들도 내면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목마름을 알고 계시는 성모님께서 자신들을 메주고리예로 부르셨다는 것을 체험한다. 이 축제 동안 세계 각 곳에서 온 수많은 젊은이들은 비록 언어와 얼굴색은 달라도 신앙과 믿음은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초월하는 공통어임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다. 또한 가톨릭 교회의 거룩한 미사와 성 시간, 은혜로운 묵주기도, 고해 성사의 은총을 되새기면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 보며 수 많은 이들이 성소의 길을 갔다. 이 행사 때에는 발현산에서 목격증인 이반을 통하여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묵상하기도 하고 아침 일찍 십자가산에서 목격증인 비스카가 이끄는 기도 그룹과 함께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기도 한다. 성당 주위에 있는 고백소 앞과 주변의 잔디밭과 풀밭에서는 고백성사를 보고자 하는 순례자들이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긴 줄을 이루고 있다. 행사는 이곳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제,*수도자, 목격증인들과 평신도들의 신앙 체험담 발표와 강의와 묵주기도와 미사, 성 시간이 진행되면서 하루의 일정이 시작된다. 또한 젊은이들을 위한 음악은 같은 내용의 교회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에게 살아 있는 신앙을 전해주는 생동감이 있다. 한 순례자는 이 음악들을 듣고 있으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껴져서 저절로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 진다고 말한다. 소성당에서는 성체조배가 계속되고 있으며 부활 청동상, 발현 산, 십자가산과 그 근처의 들과 숲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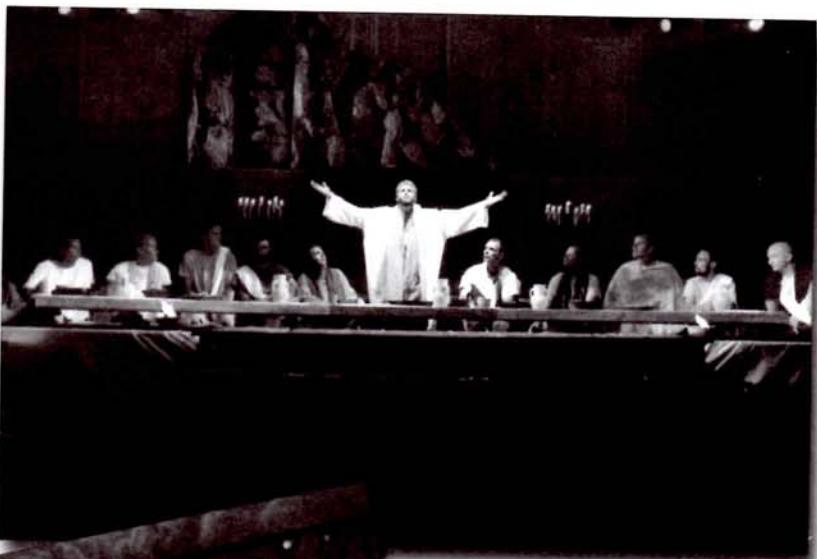
에서 침묵 중에 기도하면서 만나는 많은 이들과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자신들의 은총과 체험을 나누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행사는 젊은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들 못지않게 수 많은 어른들이 참석한다. 신앙과 믿음을 향한 여정에는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다는 한 수도자의 말씀이 생각난다.

목격증인 이반은 이 행사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성모님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시고 몹시 기뻐하셨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오늘 저녁 이렇게 많이 참석한 너희들을 보니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교회와 우리들이 올해 젊은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몹시 행복하다. 그들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모님께서 발현초부터 우리들의 도움을 바라셨다는 것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들 없이 나의 계획을 실행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나는 가정과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일하고 기도하기를 요청한다. 가능하면 많이 기도하여라. 매일 매일 너희들의 영을 굳세게 하여라. 너희들의 어머니인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린다.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여라.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 서로서로 도와주어라. 나도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발현목격증인 이반은 매일 성모님을 만나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대 사회와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마약과 술, 섹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또 분명치 않은 수 많은 위험한 오락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젊은이들의 영을 빼앗고 있으며, 그들이 하느님과 교회를 포기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

지 약 3500만 명의 순례자들이 메주고리예를 방문했다. 이곳을 찾아 오는 수 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메주고리예에서 자신들을 부르신 하느님의 뜻과 원하시는 삶의 변화를 위하여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손에 목주를 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무척 진지해 보인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한결 같이 평화롭고 기쁜 얼굴이라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대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메주고리예를 직접 와서 보라고 말하고 싶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사제와 수도자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어떤 시간을 지냈길래 그들의 얼굴에서는 마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일까!

2007년 6월 25일은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 26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다. 그 동안 이곳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더욱 확고한 신앙의 길을 갔는지는 오직 성모님과 예수님만이 알



고 계실 것이다. 그들은 성모님께서 살아 가셨듯이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겸손과 침묵으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좋은 열매를 보면서 나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



온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성시간 6월 - 7월 안내

- 6월 1일 (금) 19:00 서울 마장동 성당 (주례 : 박명근 신부) 02-2298-5521
- 6월 7일 (목) 19:00 서울 동작동 성당 (주례 : 우대근 신부) 02-595-6961
- 6월 21일 (목) 19:00 서울 방배4동 성당 (주례 : 신경남 신부) 02-3477-1900
- 7월 5일 (목) 19:00 서울 동작동 성당 (주례 : 신경남 신부) 02-595-6961
- 7월 6일 (금) 19:00 서울 마장동 성당 (주례 : 박명근 신부) 02-2298-5521
- 7월 8일 (일) 13:00 부천 상동 성당 피정 (주례 : 신경남 신부) 031-324-3462

성체 도둑이 성모님의 종으로...



나의 어린 시절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 남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엄마는 내가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버리고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엄마를 만난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자랐다. 내가 태어난 병원에서는 가족이나 연락처 조차도 없는 나를 즉시 고아원에 보냈는데 불행하게도 그곳은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6년 동안 살면서 드디어 어느 한 가정에 입양되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고아원은 어린이 학대로 파문을 일으키면서 폐쇄되었다. 유아기의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지만 나는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랐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나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폐쇄적이고 사랑을 믿지 못하고 정서가 불안한 아이로 사회성이 결여된 채 자랐다.

나는 18살이 되자 양부모의 집을 나와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였다. 어느 날 우연히 좋으신 하느님 - 그때는 좋으신 하느님인 줄 전혀 몰랐지만... -께서 내게 요리의 예술 세계에 대한 탁월한 감각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리사들의 세계에서 나는 빠르게 승승장구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요리사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위치까지 승

이 글의 주인공은 현재 메주고리예에 살고 있는 실제 인물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나오는 공동체 책임자의 이름이나 공동체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이 자매가 사탄 교회의 추종자들의 주요 살해 대상으로서 아직도 많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자매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역주. 남기옥)

진하게 되었다.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외톨이로 외롭게 자란 나이지만 드디어 나도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 이 있다고 으스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치스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중한 업무와 책임을 지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코카인이나 커피, 흡연, 술에 의존하면서 살 수 밖에 없었다. 나는 혼자서 다 쓸 수 없을 정도의 - 한 달에 5백만 원 가량의.. - 수입으로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돈에 구애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다했다. 이탈리아 전역과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최고급 호텔에서만 머물렀다. 요리사라는 직업은 특히 계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나는 각 지역마다 남자들을 정해 두고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그들과의 사랑도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면 나는 즉시 새로운 남자와 오직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루 밤을 보냈다. 그때의 나는 남녀관계는 서로 필요에 의한 육체적인 만남이 있을 뿐, 순수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 나에게는 돈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 의하여 언제든지 상대방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살았다. 상대방에게 진실한 마음이나 순수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불신으로 상대방에게 절대 마음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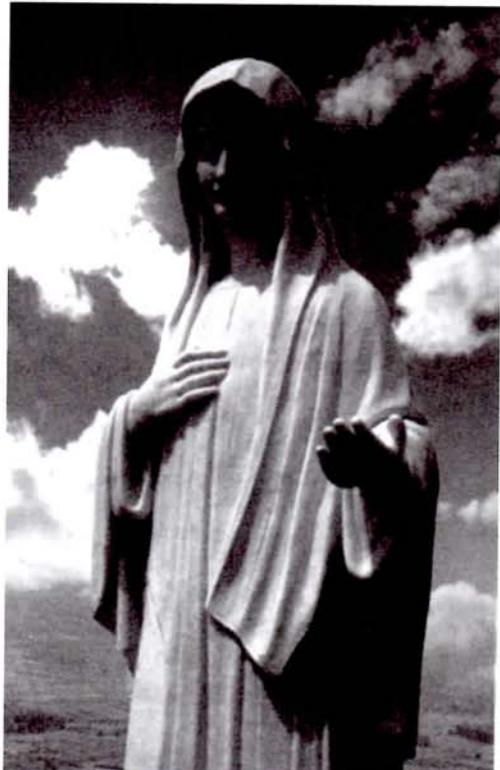


나의 딸아, 이제는 내가 네 엄마란다.

지 않았으면 감성이나 느낌 등은 의식적으로 무심해지려고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았다.

그렇게 지내던 중, 정말 내 마음에 드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나는 그 동안 만나 왔던 수많은 남자들처럼 그 남자와도 내가 원하는 하루 밤을 보내기是为了지만 그 남자는 달랐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만 자신은 가톨릭 신자라서 혼인성사를 받기 전에는 함께 잘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참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오직 나만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를 만날수록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구속 받는 것을 싫어하던 내가 항상 그와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서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사람은 처음으로 나에게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말해주었다. 그 전에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비웃었지만 이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나도 하느님을 믿고 싶었다. 그 동안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왔지만 나에게 첫사랑을 가르쳐준 그와 결혼을 약속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식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고아로 자라서 얼굴도 모르는 가족을 그리면서 외롭게 살아 온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미고 나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미래는 상상만해도 너무나 행복해서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 그러나 나의 행복은 너무나 짧았다. 지금도 꿈이기를 바라며 기억조차하기 싫은 불행한 일이 생겼다. 내가 처음으로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그가 수혈로 인해 돌아온 저주 받은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느님께 무릎 끊고 두 손 모아 기도 했다. 그를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나 그는 그토록 기다리던 나와의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죽었다. 나는 청천벽력을 맞은 듯

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이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죽었다는 현실을 저주하면서 숨이 멈추어서 차갑게 식어 가는 그의 몸을 붙들고 놓을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내게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이지 가르쳐 준 사람, 목숨보다 소중했던 그 사람을 영원히 떠나 보내는 장례식 날 저녁 나는 미친듯이 고함을 지르면서 하느님을 저주하였다. "만약 당신이 정말 존재하는 신이라면 나는 당신을 찾아 내어 때려 눌히고 말거야! 하지만 있지도 않는 당신이었다면 나는 평생을 바쳐서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상을 향해 외치겠소!!!"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내 곁에 있지만 만질수도 볼 수도 없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다 허무맹랑한 사상과 점괘술에 매달리며 그를 잊어 보려고도 했지만 결국은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 시작한 치료에 중독이 되어서 네 번씩이나 받던 나는 결국은 마약중독이나 다름없는 정신과 진료 중독자가 되어 버렸다. 그때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단 한마디라도 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이제는 정신과 의사 없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 황폐하고 무능한 지경까지 됐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불행은 그때부터였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찾아 다녔던 정신과 의사은 후에 알고 보니 그 무서운 사탄교회의 교주였던 것이다! 그 의사은 내 마음속에 있는 버림 받은 상처와 증오심을 끄집어 내어 끝없이 세상을 저주하고 악을 자행하도록 나를 부추겼다. 나는 그가 원하는 일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했다. 그는 이미 정신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를 떠날 생각 조차 할 수가 없었다. 특히 그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축성된 성체를 훔쳐오도록 시켰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 딸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구나!

그들은 미사를 통해 사제에게 축성된 성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그래서 그 성체를 훔쳐다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갖은 모욕적인 말과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만의 검은 예식을 행한다. 그런 사탄 교회의 추종자로 미친 듯이 살 아온 지난 2년 동안 나는 여성으로서의 고귀함까지도 모두 잊어 버리고 몸과 마음은 서서히 죽어 갔다.

10년 전 성탄 대 축일 밤, 그들은 내가 정말 자신들의 사탄 교회의 추종자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어떤 한 자매를 살해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자매는 열심한 가톨릭 신자로서 몇 년 전 짧은이들을 위한 공동체를 세우고 특히 바티칸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자매였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나는 이 제의를 수락하였다. 1월 5일 저녁 8시 나는 옷 속에는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그들이 가르쳐준 주소로 그 자매의 공동체를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그 공동체의 책임자인 C 자매가 지금도 내게 하는 말이 있다. 그녀가 내가 누르는 초인종소리를 들은 순간 성모님께서 "내 딸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구나! 네 도움을 기다리면서 문 밖에 서있으니 어서 문을 열어 주어라."라고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날 C 자매는 나에게 문을 열어 주면서 "나의 자매여!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구나!"라고 말하면서 나를 꼭 껴안았다. 예상치 못한 일로 내가 갑자기 그 C 자매의 품 속에 안겼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순간이 오래 전에 살았던 집에 돌아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 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껴안아 주는 엄마의 품에 돌아온 것처럼 그 자매의 품에서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사랑하는 그 남자가 주기 전까지도 늘 말해주던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다. 아, 그 사람이 말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녀를 죽이려고 칼을 품고 찾아간 나는 그 한 번의 포옹으로 사악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 포옹은 나에게는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던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포옹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포옹, 그랬다! 내가 죽이려고 찾아간 그 C 자매는 몸은 살

아 있지만 죽은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 한 번의 포옹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 나는 모든 것을 의탁하고 C 자매와 함께 지낸 지 약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의 삶은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 공동체에서는 나에게 미혼모들과 출소 재소자들,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을 도와주기 위한 센터를 세우고자 책임자로 파견했다. 내가 감당하기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내 마음 안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늦은 감은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듯이 나도 그 센터 책임자로 봉사하면서 나의 출생에 대해 스스로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 그래, 하느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태어났겠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거지? 나를 낳은 엄마라고 불려져야 하는 그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병원에서 갓 태어난 빛덩어리인 나를 버리고 도망쳐 버린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도록 나를 괴롭혔다. 이제 와서 나를 낳은 엄마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를 버리고 도망쳐버렸던 죄값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되면 나를 낳아 주어서 이렇게 세상의 빛을 보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낙태 시켜 버리지 않은데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며 오히려 행복했다. 정말 엄마를 만나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모자원 센터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자신의 아기를 낙태한 뒤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더욱 나의 엄마를 만나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내 삶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나를 낳아 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념을 갖고 생모를 찾는데 거의 2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탈리아의 생모를 찾을 수 있는 법률기관의 도움으로 드디어 엄마와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화기를 통해서지만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목소리를 들은 것 만으로도 기뻤으나 엄마가 먼저 나를 만나자고 했다. 엄마를 만나러 가는 그 날 나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기 조차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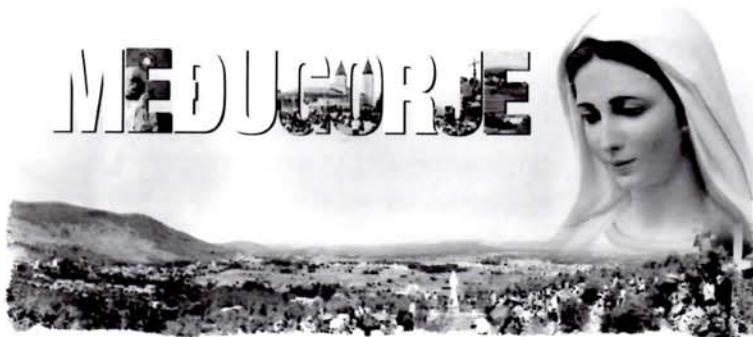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모님의 손을 꼭 잡으세요!

감성의 모세 혈관들이 모두 곤두서는 것 같았다. 세상에 온갖 험한 일은 다 경험해봐서 두려운 것이 없는 내가 왜 이럴까 … 마음을 진정하려고 숨을 몰아쉬면서 안간힘을 다해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

하려고 애썼지만 불가능했다 … 엄마가 사는 도시에 도착했다. 마치 날아 갔다고나 할까 … 드디어 나도 그렇게 그리워하던 엄마를 껴안아 볼 수 있었다! 그 자리에는 공동체에서 정말 나를 아껴주고 몇 년째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들이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이 만남에 동참해 주었다. 그러나 … 그러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는 만난 지 몇 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마치 어떤 것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눈초리가 되더니 오… 아무도 그런 눈초리를 보지 않았으면 싶을 정도로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면 말했다. "네가 나에게서 태어났어도 너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내 인생에서 확! 꺼져버려 당장!"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 앞이 깜깜해졌다. 내 귀에 들리는 엄마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후비고 찔렀다. 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차라리 만나지 말고 그냥 옛날처럼 그리워하면서 살 것을 … 이제 나에게는 그리워 할 사람 조차도 없었다…

공동체 창설자 C자매는 또 다시 엄마에게 벼름받아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고 절망의 깊은 늪으로 빠져 고통에 젖어 있는 나를 메주고리예에 있는 공동체로 파견하였다. C자매는 나의 상처는 아무도 치유해 줄 수 없고 오로지 성모님만이 너를 치유해주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11일 정도 머물고 있던 어느 날, 6명의 발현목격증인 중의 한 사람인 마리아 파블로비치 루넷띠가 성모님의 발현 시간에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나는 성모님의 발현 장소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강력한 뜨거운 힘을 내 온몸으로 느끼며 마치 내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느꼈다. 마치 더 이상 쓰지 못할 상처투성이 심장을 도려내고 새로운 심장이 심어지는 것 같은 수술을 받는 느낌이었다. 나를 낳은 엄마에게 두 번이나 벼름받



은 아픔과 상처들, 그 토록 사랑하던 사람을 떠나 보낼 때의 절망감과 지내온 삶 속에 있던 모든 고통과 분노가 치유되면서 흔적조차 없이 아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성모님의 발현이 끝난 뒤 목격

증인 마리아가 그날 성모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지향과 기도를 성모님께 말씀 드렸고, 성모님은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눈이 내 얼굴과 눈빛을 바라보더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덧붙여 설명했다. "성모님께서는 이 자매님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모든 고통을 당신 것으로 받으셨어요. 자매님의 마음 깊이에 있던 견딜 수 없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성모님께서 자매님의 진정한 엄마가 되어 주신대요!" 나는 성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마리아와 함께 성당 밖에 있는 수도원의 오솔길을 걸어 나오면서 물어보았다. "마리아, 소성당에 있을 때 내게 다른 말도 할 것이 있었나요?" 그녀가 대답했다. "자매님, 그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 내 손에는 언제 어디서나 묵주가 들려있었다. 묵주기도를 통해 내 손을 잡으신 성모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으며 그 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의 손이라고! 정말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모님의 그 손을 놓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더욱 힘을 주어 꼭 잡아야 한다고!

나는 오늘도 거룩함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침묵과 겸손의 생활, 순명과 정결함과 인내의 생활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 중의 하나는 내 온 생애를 주님께 봉헌한 날이었다. 이제 나에게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나의 모든 것을 공동의 삶을 위해 내놓았다.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처럼… 그려면서도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이다.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느님과 성모님의 사랑만은 영원히리라. 아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가톨릭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 발행 및 무료보급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예 순례 안내
- 3. 메주고리예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4. 메주고리예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7. 메주고리예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를 보내드립니다.
-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예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키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년 월 일 _____

E-mail: _____ 소속 분당: _____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월() 년() 기타() 금액() 회원번호()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동훈, 곽영숙, 권스티브, 고데레사, 공시메온, 김갑식, 김건일, 김금성,
김글라라, 김루시아, 김마데라, 김명대, 김명주, 김봉희, 김세록, 김수장,
김시순, 김옥희, 김영보, 김유경, 김정우, 김율리안나, 김원희, 김주희, 김준홍,
김재국, 김정림, 김창성, 김추심, 김춘자, 김춘희, 김혜정, 김혜숙, 김효정, 권혁주,
구데레사, 남마리아, 남민우, 노안나, 문방자, 민헬레나, 박영희, 박금자, 박병칠,
박수현, 박세실리아, 박연희, 박정원, 박청희, 박태찬, 백안셀모, 백종철, 범선옥,
서애자, 서해경, 성문선, 손은하, 송데레사, 송정순, 신복현, 신순덕, 신안나,
안준애, 안세실리아, 안소영, 엄경숙, 엄봉화, 여대경, 오미정, 오소피아,
우아그네스, 유광문, 유글라라, 유은경, 윤경만, 윤양수, 윤소화데레사,
이경, 이계숙, 이국주, 이베드로, 이마리아, 이막달라나, 이미애, 이미카엘라,
이정순, 이준영, 이태영, 이정승, 이해분, 이정옥, 이정자, 이지혜,
이비비안나, 이현, 임건조, 임순미, 임효경, 장데레사, 장영희, 장지혜,
잔손윤숙, 전병옥, 전선희, 전현숙, 정명좌, 정민주, 정인환, 정윤도,
정율리엣따, 정영화, 정옥순, 조글라라, 조스테파노, 조병주, 조성진,
조안나, 주태형, 지현남, 지모니카, 진스텔라, 차준구, 최루시아, 최수산나, 최순채, 최상황, 최미숙,
최영자, 최영희, 최윤희, 최인자, 최종훈, 최종권, 최중환,
탁마리아, 한별바라, 한아가다, 한윤심, 한요셉& 모니카,
황계자, 황세라, 황영원, 황정애, 황혜정, 허윤영,
현엘리사벳, 호문숙, 홍경복, 홍병오, 홍성칠, 바다의 별pr,
말세리나.

Anna Family, Fairview Cleaners, Y. Lee,
Elly S. Sunwoo, K. Larcenaire, Y. L,
Me R. Kang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38호 후원금	\$ 6,864.00
지출 (38호 소식지)	
소식지 인쇄, 발송 및	
후원회원봉투 인쇄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 9,480.00
잔액	- \$ 2,616.00

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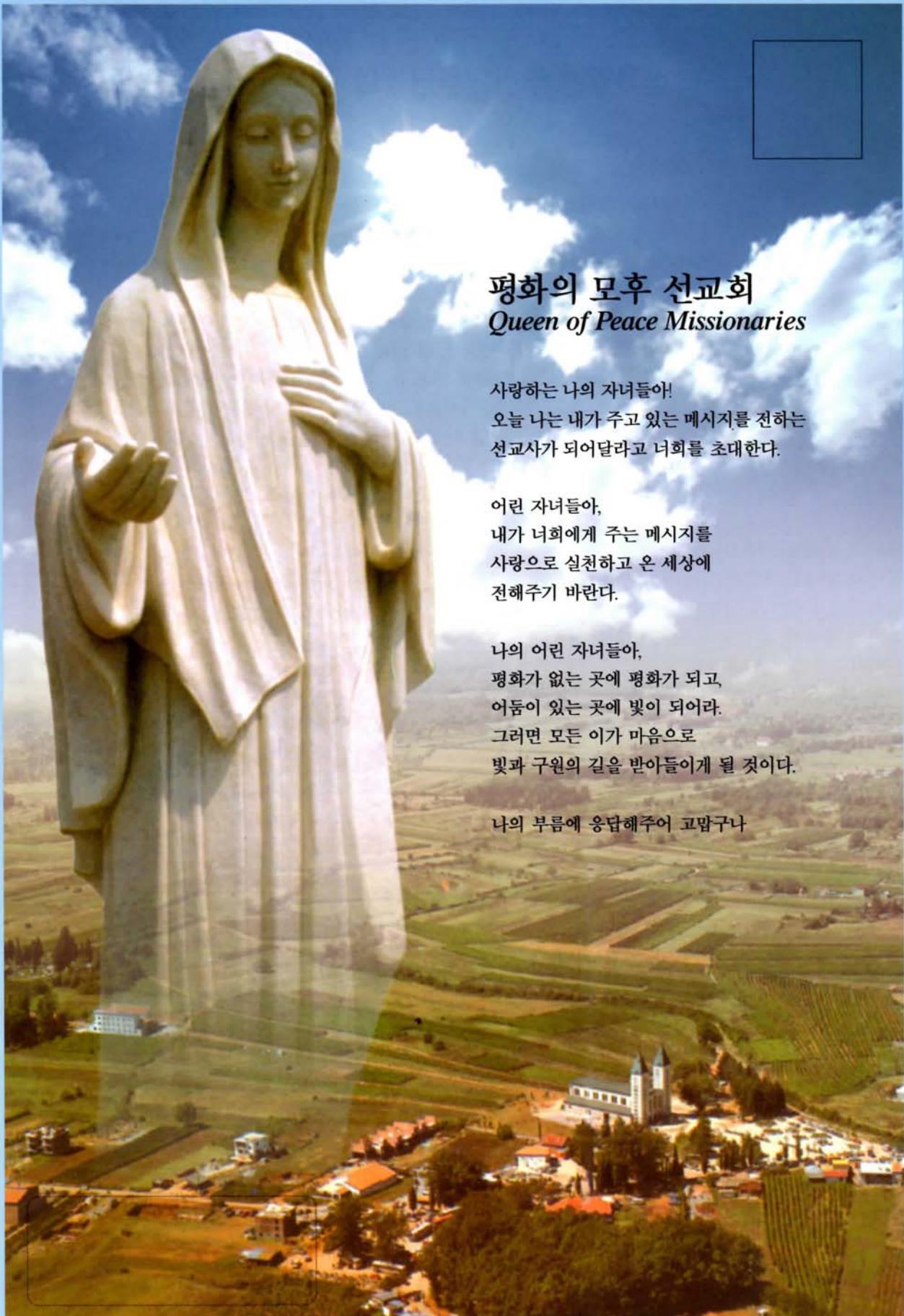
주어진 소명

형제여!

무엇을 할지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더 이상 반복해서 쓸 데 없이 하늘에 대고
"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그 대신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랑하게 되면, 그대가 나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사막의 은수자, 까를로 까레또 –





USA

최 래자나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org@gmail.com

KOREA

어 안젤라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한양빌딩 B 1
Tel. 017-785-3535 / Fax. 02-2281-3246
E-mail : soulbassmaster@hotmail.com

CANADA

이준용 쿨비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해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가 마음으로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